

#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잘못된 가르침과 오류를 바로잡는다 3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 목차

2524 성경의 잘못된 해석. 이단.....	4
교리 - 교회의 계명 - 영적인 강요.....	6
2412 영적 강요. 인간의 계명.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맞서 싸우십시오.....	6
3329 자신의 책임. 교리.....	7
4294 교리.....	8
4993 영적인 강요. 도그마.....	10
6967 영적인 강요.....	12
6813 사람이 정한 계명을 지키는 일이 사랑을 향하는 일을 대신할 수 없다.....	13
의식.....	15
6732 전통과 의식. 의식의 효과.....	15
8688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일.....	16
예배.....	18
1375 인간이 추가한 역사. 교회 출석.....	18
1376 형식들. 하나님의 자녀권.....	19
1377 의식. 하나님의 자녀권.....	20
1814 함께 드리는 예배. 전통.....	20
4519 성막.....	21
5571a 형식과 의식. 올바른 예배.....	22
5571b 형식과 의식. 올바른 예배.....	23
6280 올바른 기도와 예배.....	24
8829 거짓 예배.....	25
8673 올바른 예배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드리는 예배이다.....	26
성체 성사.....	29
0764 성찬식.....	29
4379 주의 만찬. 영적인 감각. 육체와 피.....	30
5384 성찬.....	31
6717 주의 만찬 때에 사용하는 말씀.....	32
8728 축복에 대한 설명.....	34
세례 성사.....	38
6611 세례에 대해.....	38
6769 세례에 대해. 성인의 세례.....	39
8643 물세례에 대한 설명.....	40

8941 고린도 전서 15 장 29 절. 죽은 자를 위한 세례.....	42
고해 성사.....	44
1482 죄의 용서. 무오설. 관습적인 행동.....	44
6709 너희가 죄를 용서한 것처럼.....	45
8373 너희가 죄를 용서해 주는 자들에게.....	47
혼인 성사.....	49
4834 하나님 앞에 올바른 부부.....	49
6940 모든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결혼.....	50
성품 성사 - 종부 성사.....	52
8692 의식들 (신품성사, 종부 성사 (임 종전 마지막으로 받는 기름 바르는 예식)).....	52
7448 하나님은 생각하기를 요구한다.....	53
8796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지식으로부터 결심에 도달해야만 한다.....	55
8651 그리스도의 올바른 교회.....	57

성경의 잘못된 해석. 이단.

B.D. No. 2524

1942년 10월 26일

**사**람들은 거룩한 경전인 성경의 많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그 결과 진리와는 거리가 먼 지식의 오류가 발생한다. 이런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가르침이 사람에게 의해 사람에게 계속 전파되었다. 이로써 오류가 점점 더 퍼져, 오류를 오류로 깨닫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영의 상태에 맞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 즉 자신의 혼을 형성하려는 깊은 의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연구하는 방식으로 헤아려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고, 생각은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런 방식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설교한 내용에 동일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킨 교리가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인용했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를 부여했고, 인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해석이 의미를 바꾸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었고, 변개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류에게 제시했고, 이제 다른 어떤 것도 인정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런 변개된 말씀을 모든 열심으로 대변한다.

그들에게 순수한 진리를 주는 일은 어렵다. 그들이 어떤 면에서 순전히 인간적으로 대변하고, 인간의 작품을 숭배하고 있고, 이런 인간의 작품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일은 어렵다. 그들이 스스로 이런 확신을 갖기 전에는 그들은 또한 진리를 오류로 제시할 것이고, 진리의 대변자들이 그들과 접촉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에 관

련된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진리의 수호자로 여길 것이고, 어둠의 영역에서 온 것으로 생각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빛과 어둠이 싸운다. 그러나 진리를 향한 진지한 노력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는 한, 단지 잘못된 가르침만을 믿었던 사람들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지 않는 한, 빛이 빛으로 인식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작게 여기고,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 왜냐면 그들에게는 깨달음에 도달할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고, 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의지로 반대하지 않고, 그들이 진리로 깨닫는 진리를 갈망하며 영접하기 때문이다.

아멘

영적 강요. 인간의 계명.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맞서 싸우십시오.

B.D. No. 2412

1942년 7월 17일

**모**든 영적 강요는 정죄를 받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영적 강요로 행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완전한 자유의지만이 인간의 행동의 가치를 정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단지 선포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계명과 규정을 통해 그들이 의무적으로 특정한 삶의 방식대로 살도록 해서 안 된다. 사람들을 실제 옳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양육해야 하지만, 그러나 단지 그들의 행동이 옳거나, 옳지 않음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 그들은 사랑을 실천하도록 권고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계명에 의해 그들의 내적 의지와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단지 사랑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또한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의 계명을 완수하는 사람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모든 일을 행하기 원하도록 자신의 심장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어떤 삶을 살도록 유도하고, 그런 계명을 성취시키지 않는 일이 이웃 사람에 대한 사랑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 계명은 하나님이 준 계명이 아니다. 다시 말해 그런 계명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밖에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사랑을 설교하지만, 그러나 외적인 강요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의 계명의 성취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의 변화가 영원을 위해 가치가 있으려면, 인간은 완전한 자유의지로 자신을 형성할 수 있게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의무적으로 요구한다면, 의지의 자유는 제한을 받는다. 심장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선행은, 즉 내적 충동에 의해 사랑을 행하지 않는 일은 실제로 평가를 받는다. 즉 심장의 따스함이 없는 의무를 수행하는 일로 평가를 받는다.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너무 적게 점검해보는 일은 크게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 땅에서 행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은 인간편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추가한 계명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유일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나 진실로 사랑을 행하는 일 외에 다른 것을 목표로 하는 인간이 제정한 계명을 절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사랑을 가르치는 곳에서는 또한 사랑을 행해야만 하고, 사랑을 행하는 일은 이웃 사람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든 일로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웃사람에게 단지 선을 행하라는 요구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단지 이웃사람을 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이웃사람에게 유익을 주라는 요구를 할 것이다. 사람이 이웃 사람의 안녕을 염려한다면, 그는 사랑 안에 거한다. 왜냐하면 사랑이 그가 이웃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사랑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행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런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일이 이웃 사람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거나, 상처를 주지 않는 경우, 이런 요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르침과 혼동되어서는 안되는 사람이 만든 규정이다. 인간이 추가한 계명 때문에 사랑의 계명이 무시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한 가르침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지 못할 큰 위험이 있다. 이런 일은 인류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르침을 완전히 없애 버리기 때문에 일어난다. 왜냐면 인류가 그들에게 영적인 강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인간을 자유롭지 않게 만드는 계명에 더 많이 그들의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상은 화를 내며, 이제 단지 사랑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가르침을 포함하여 모든 것에 대항하여 싸우고, 물리치려고 한다. 사람들에게 의해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에 추가된 모든 것은 단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대항하여 오류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다. 왜냐면 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역사로 사람들에게 남긴 것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것이 남아 있지만, 인간의 역사는 사라질 것이다.

아멘

자신의 책임. 교리.

B.D. No. 3329

1944년 11월 14일

 든 사람이 자신의 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고 그러므로 그는 모든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마찬가지로 모든 실행에 옮기지 않은 선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는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에 댓가를 치를 수 없고, 자신 스스로 이 땅이나 또는 저 세상에서 댓가를 치러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그는 단지 유일하게 스스로 자신의 성장 정도를 높일 수 있고, 높은 성장 정도를 그에게 선물해줄 수 없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혼의 구원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만 한다. 왜냐면 어떤 사람도 이 책임을 그 대신에 져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하고, 즉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야만 한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역사하게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이 그에게 전파하려는 것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고, 이를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야만 하고, 그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적으로 모두 일치한다면, 그는 그의 영향에 자신을 맡길 수 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그는 그가 자신의 것이라 할 수 있는 생각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모든 것을 시험해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그가 바로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게 오류가 전달이 되어, 자신이 결과적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었다는 근거로 제시할 수 없고, 그가 진리를 갈망한다면, 마찬가지로 그에게 제공되는 진리에 스스로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왜냐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하나님은 이 전에 그에게 올바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이를 따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공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이웃 사람이 자신에게 제공하는 것을 신뢰한다면, 그는 자신의 모든 책임을 회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가 자신을 가르친 이웃사람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성을, 생각할 수 있는 은사를 주었고, 그는 이 은사를 활용하여, 그 자신이 무엇 옳바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행할 수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만약에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통해 그들 안에서 이에 대한 책임감이 깨어나게 하고, 책임감을 갖지 않는다면, 학교 교육 방식으로 전해진 영적인 지식이, 다시 말해 사람들이 학교에서 교육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인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전적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인간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일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가르침을 사람에게 주었는지, 사람편에서 어떤 가르침이 추가되었는지 깨달을 것이고, 인간은 언젠가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기 위해, 먼저 자신이 받은 지식을 분석해야만 하고, 그는 이를 통해, 그가 진리를 갈망한다면, 진리와 오류를 분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면에 독단적인 교리는 그 안에 책임감이 사라지게 하고, 사라지게 만들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러면 요구를 받는 것을 믿거나, 성취시키는 일이 단지 순전히 기계적인 일이 되고, 사람은 자신이 양심적으로 성취했다고 믿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책임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고, 그가 요구 받기 때문에 행하는 것은 그가 어느 정도 강요 아래 행하기 때문이다. 그가 거부할 수 있거나 또는 요구받은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일을 행하는, 모든 행동을 취하는 원인이 되어야 할, 내적인 동인이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행동한 것이 아니다.

사람은 자신이 단지 사랑으로 행하는 일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일이 단지 사랑에 의해 정함을 받아야 하고, 모든 사랑이 없음이 사랑 자체인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로 의식해야 하고, 사람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명하는 일은, 사람에게 의무로 부여된 일은 자유로운 생각과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사람은 어떤 면에서 단지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즉 자신에게 의무를 부여한 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사람이 내면으로부터 우러나 행하고, 생각하지 않는 일은 혼에게 적게 유익이 된다.

이웃사람이 절대로 혼에 대한 책임을 넘겨 받을 수 없고, 사람 자신이 책임을 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시험해볼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해, 언젠가 책임을 질 수 있기 위해, 사람들의 해석이나 첨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를 뒤야만 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연결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이제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생각을 통해 계시해줄 것이다.

아멘

교리.

B.D. No. 4294

1948년 5월 9일

**트** 정한 영적인 방향을 가진 사람에게 다른 영적인 방향을 보여주는 일은, 그에게 그의 지식과 상반되는 지식을 제공해주는 일은, 그가 자유의지로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동안에는 영적인 강요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법에 의해 받아드릴 수밖에 없도록 강요받는다면, 그는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즉 그는 처벌의 위협을 통해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일은 절대로 혼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강요이다.

그러므로 나의 말씀은 항상 설교되어야 하지만, 항상 사람들에게 강요가 가해지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순수한 진리가 공급되는 역사는 완전히 자유 의지의 역사이다. 깨우침을 받지 못한, 듣는 사람의 거부하려는 의지가 더 크다면, 그가 항상 인간의 역사로 여길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만약 사람이 순수한 진리와 그의 혼의 성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면, 그런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원임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또한 확실하게 나로부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진리 안에서 움직이는 일이, 내 뜻이고, 내가 그에게 올바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지는 나에게 의해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또한 인간 편에서 이웃 사람에게 교리를 영접할 의무를 부여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이웃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가르침을 통해 영적으로 강요하는 일을 거부한다. 사람은 내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러나 비록 믿음의 가르침이 진리에 합당할지라도, 그의 내면의 느낌이 믿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면, 나는 절대로 그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아직 죄를 짓지 않은 것이고, 단지 그의 진리를 향한 갈망이 아직 그렇게 깊지 않아, 진리를 진리로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가르침을 시험해보지 않고, 내적인 확신 없이 영접하는 일은 혼의 성장에 전혀 가치가 없다.

교리는 항상 혼에게 불리하다. 왜냐하면 사람이 믿음의 가르침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고, 그러나 사람이 깊이 생각해보는 일이 없이는 확신을 가진 믿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스스로 그들의 혼의 영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실제 인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혜로운 인도자는 단지 가르친다. 즉 심장과 이성을 자극해주려고 시도한다. 왜냐하면 각 개인이 나와 연결과 영의 나라와의 연결을 이뤄야만 하고, 이 땅의 나의 대리자들이 그들에게 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일을 통해 그들에게 길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나의 대리자들은 항상 내가 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나의 대리자들은 절대로 자신의 것을 추구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으로 계명을 주거나, 사람들에게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나는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고, 나는 단지 끊임없이 진리를 전하고 전파하는 일을 한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나를 구하는 것이고, 나는 진실로 그가 나를 찾게 할 것이다. 그러나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교리로서 그에게 전해진 그러므로 그가 거부할 수 없다고 믿는 믿음의 가르침에서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모든 교리적인 가르침은 내가 인간에게 준 의지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영적인 강요이고, 내 뜻과 일치하지 않고, 이 땅의 나의 대리자들은 나를 대신하여 이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나는 진리를 전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할 것이고, 비록 그가 저항을 받을지라도 그에게 진리를 전할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러나 진지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진리를 깨달을 것이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를 도울 것이고, 그의 영이 깨어나게 해줄 것이고, 그의 의지를 축복할 것이다.

영적인 강요. 도그마.

B.D. No. 4993

1950년 11월 2일

**사**람에게 가장 큰 위험은 영적인 강요이다. 이 강요가 사람이 깨닫고 스스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하는 일을 방해한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한 존재로서 온전하게 되도록 자신을 바꾸어 나가야 하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온전하게 되기 위해 필요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결정해야만 하고, 내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증명해야만 한다.

나는 이런 증명을 요구한다. 나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 방향으로 또는 저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의도하도록 행하도록 지배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음을 천명한다. 의지의 자유는 침해받을 수 없게 돼야만 한다. 만약에 법에 의해 의지의 방향을 정해버리거나 약속이나 위협으로 어떤 방향으로 의지를 사용하도록 정하면, 자유의지를 침범한 것이다. 나는 이런 의지의 강요를 절대로 현재도 앞으로도 비록 내가 사람들의 의지에 강요를 하지 않기 위해 이런 일에 공개적으로 대적하지 않을지라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단지 이 땅의 영적인 존재의 마지막 성장단계에서 결정하게 할 목적으로 내가 그에게 자유롭게 의지를 사용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 생각하는 개별적 존재이다. 그는 영원 가운데 자신의 의지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 사용한 의지와 잘못 사용한 의지의 결과를 알려주는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이고 기뻐하는 일이다. 그가 창조주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설명받는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이다. 이로써 그가 바르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에게 사랑의 가르침이 전달되었고, 그가 자기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행하도록 타이름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강요가 없이 행해져야 한다.

사람은 가르침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전해진 가르침을 영접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된다. 왜냐면 그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이 동인이 되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자유 의지를 주었고 너희는 자유의지를 받았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의 사명을 받아서 일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한다. 나는 절대로 나의 사도들에게 믿을 것을 강요하면서 나의 가르침을 전파하라고 하지 않았다. 왜냐면 강요아래 믿은 믿음은 혼을 구원하고 성장하게 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단지 사람들에게 나를 최고의 온전한 존재로 믿을 것을 요구하고, 나의 전능함과 지혜와 사랑과 사랑의 능력을 믿을 것을 요구한다. 왜냐면 너희가 이를 믿을 때, 너희 자신이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고 다른 모든 믿기 위해 필요한 일을 스스로 깨닫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러면 진리에 합당하게 너희를 가르치는 내 영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강요된 믿음은 온전함을 주지 못하고 강요된 믿음이 생명력 있게 되는 일은 희귀하다. 나는 강요된 믿음을 자유 의지에 대한 결정이라고 받아 들일 수 없다. 왜냐면 의지가 그 사람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대신에 그들은 양육받은 영적 방향에 따라 고백하고, 양육받은 것이 올바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이 믿기를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단지 사랑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믿음도 너희 자신이 얻어야 한다. 너희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사랑이 영적인 능력이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 너희가 먼저 사랑을 행해야만 한다. 그러면 내적인 확신이 비로소 생명을 깨어나게 하는 확고한 믿음이 된다. 왜냐면 자유의지로 이 믿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모든 강요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원래 초기부터 영적인 존재들이 가지고 있었고, 복되게 되기 위해 다시 얻어야 하는 자유를 모든 강요가 침해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는 강요하는 일이 어떻게 내 뜻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사람들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영접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믿어야만 한다면, 그런 일이 어떻게 내 뜻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내가 법을 만드는 가장 높은 입법자로서 모세를 통한 10 계명이 포함되어 있고 자유의지로 사랑을 행할 때만 지킬 수 있는 사랑의 계명 외에는 다른 계명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다. 왜냐면 다른 계명은 나 자신을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고,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졌음을 의심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 평가하여 법을 만들 권한이 없이 법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침해한다.

모든 법은 강요이고 모든 강요는 나의 의지에 반하는 일이다. 사람이 생각할 자유를 가지고 활동할 수 없다면, 하나의 가르침을 믿어야만 한다면, 그들이 이 땅에서 치러야 할 의지의 시험이 무의미 하게 된다. 왜냐면 그 자신이 결정해야 하고, 이 결정이 강요아래 이뤄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진리의 부합되건 안되건 간에 모든 도그마적인 가르침은 강요이다. 모든 도그마는 영적인 결정을 하는 순간에 자유가 없게 하고 자유의지를 강제로 침탈하는 일이다. 왜냐면 도그마는 그에게 미리 주어져서 단지 죄를 지음으로 도그마를 어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나로부터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받았다. 나는 단지 그들이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요구받을 때, 그 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요구한다. 그가 생각을 했을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영접할 수 없다면, 나는 이를 그의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가 자신의 심장에 물어보지도 않고 입으로 고백하면, 나는 그런 일을 죄로 여긴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에 한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의 믿음과 생각을 항상 도그마적인 가르침으로 여길 수 있는 법을 통해 정하려고 한다면, 이는 교만이다.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모든 일은 나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왜냐면 나 자신도 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원하지 않는데, 그가 진리를 영접하도록 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실제 항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순수한 진리로 인도한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가르침을 영접하거나, 거절할 자유를 준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모든 사랑으로 너희 이웃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이웃에게 결정할 모든 자유를 줘야 한다. 왜냐면 강요된 믿음은 나의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가 너희의 이웃에 의해 너희 의지에 강요받는 동안에는 너희에게 자유롭게 결정할 권한을 허용하지 않는 동안에는 너희는 영적인 종의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영원한 형벌로 위협을 통해 지키게 너희에게 주어진 것을 너희가 영접하거나 또는 거절하게 만드는 일은 절대로 내 뜻이 될 수 없다.

너희는 전적으로 자유롭게 너희의 결정해야 한다. 왜냐면 너희의 의지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각각의 사람은 자신을 위해 결정해야 한다. 왜냐면 이를 통해 죽음 후에 혼의 운명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너희를 강요 아래 두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계명도 주지 않았다.

왜냐면 내 사랑의 계명도 너희의 자유의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랑은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이를 깨달아야만 한다. 그러나 사랑이 비로소 진리 된 지식을 알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너희가 무엇을 진리로 영접해야 할지 너희에게 정해주면, 너희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왜냐면 사람이 사랑의 삶을 살면, 비로소 너희에게 전해진 믿음의 가르침이 진리에 합당한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이런 시험을 스스로 해야만 한다. 그는 금지하는 계명이나 또는 명령을 통해 이 시험을 하는 일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면 명령을 통한 것은 영적인 강요이기 때문이다. 이런 영적인 강요가 사람들이 산적인 잘못 된 가르침 가운데 살게 만들었고 스스로 자신이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게 했다. 왜냐면 그들이 그들을 위협한 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생각의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다. 단지 자신의 판단이 그에게 축복을 줄 수 있다.

영적인 강요는 모든 독단적인 가르침이다. 이 독단적인 가르침이 진리를 합당한지 또는 합당하지 않은지는 상관이 없다. 나는 너희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순수한 진리를 준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순수한 진리를 영접하게 강요하지 않는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요하는 조치는 항상 연약함과 사람들을 다른 길을 통해 목표에 도달하게 할 수 없는 무능력을 증거한다. 나를 진지하게 섬기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웃에게 모든 사랑으로 올바른 생각과 행동의 축복을 알려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내 사랑의 복음을 항상 또 다시 선포해야 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삶을 살게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그는 모든 강제하는 조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자신의 이웃에게 항상 또 다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요구할 수 있다. 그는 사람들이 듣게 사랑이 충만하게 권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위협하는 가운데 듣게 만들거나 또는 계명을 통해 듣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에게 의해 선포 된 교회 법에 동의한다고 천명할 수 없다. 이 교회의 법은 단지 모든 사람을 의무를 다하게 인도하고 그러나 자유의지로 나에게 헌신하는 것은 숨긴다.

나는 다른 교파의 영적인 문서를 보는 일을 금지하는 것에는 더욱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스스로 그의 진리성을 시험해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진리에 도달하는 일이 진지한 일이라면, 그가 나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는 시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이 땅의 성공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원하는 것이 정한다. 왜냐하면 강요 가운데 단지 의무나 또는 계명을 청취하기 위해 행한 일은 내 눈 앞에 가치가 없는 반면에 나는 단지 자유의지로 이룬 일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한번 사랑의 삶을 살려고 열심을 드린 사람은 사랑 만이 사람이 진리 안에서 사는데 결정적 임을 밝고 선명하게 깨달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모든 계명이 필요 없게 됨을 깨달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스스로 내 뜻을 실행하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유로운 의지의 결정을 할 수 있기 위해 스스로 파고 들어가야만 함을 알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이 나 자신이 사랑인 나와 유일하게 연결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가 사랑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 나와 함께 이 땅의 길을 가면, 그의 의지는 항상 인간적인 계명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방향을 잡을 것이다. 나에 의해 너희는 언제든지 자유하다.

그러나 내 대적자는 강요를 통해 너희를 자신을 위해 얻으려고 한다. 대적자 자신이 너희에게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을 통해 강요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므로 모든 강요를 거부하라. 왜냐하면 강요는 항상 너희를 멸망시키려는 자가 역사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아멘

사람이 정한 계명을 지키는 일이 사랑을 향하는 일을 대신할 수 없다.

B.D. No. 6813

1957년 4월 23일

**너**희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일을 대신할 것이 없다는 것이 선명해야만 한다. 너희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사랑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너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영원한 축복을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선명해야만 한다. 이런 사랑을 행하는 일 외에 구원을 주거나 또는 축복을 약속하는 것으로 너희에게 추천하는 모든 것들은 가치가 없고 너희가 완성에 도달하는데 한 걸음도 성장하게 해주지 않는다. 많은 것들이 축복을 주는 것으로 너희에게 소개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주 유일하게 너희가 축복을 받게 도와주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람들에게 내 계명을 지키라는 요구 외에는 다른 요구를 너희에게 하지 않았다. 나는 항상 이웃을 사랑하라는 요구 외에는 다른 요구를 너희에게 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너희와 너희 이웃들 간에 좋은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가르침을 설교했다. 나는 단지 너희 사람들에게 부족한 그러므로 너희의 불행한 상태의 원인인 사랑을 너희 안에서 불타오르게 해주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내 지속되는 염려는 너희 안에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 사람들 가운데 사랑하려는 의지가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단지 너희의 사랑하려는 자원하는 자세를 높여 주는 일이다.

그러므로 나와 같이 단지 사랑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 올바른 대리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유일하게 나에게 인도하는 축복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길을 사람

들에게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다른 행동이나 또는 형식으로 사랑을 행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가 주지 않은 계명을 따르는 일로 내가 만족한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사랑이 없이 계명을 따르는 일은 전혀 가치가 없고 너희는 이로써 어떠한 은혜도 얻지 못한다. 왜냐면 내가 이런 행동과 관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과 관습을 통해 어떤 훈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왜냐면 이는 단지 내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유일하게 너희가 다시 타락하는 일로부터 구하고 사랑이 유일하게 너희를 완성에 도달하게 한다. 사랑은 항상 행동을 통해 나타낼 것이다. 왜냐면 사랑이 내면으로부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질서대로 일하게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못 된 생각으로 인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사랑의 계명에 대한 무관심에 사로잡혀 있다. 왜냐면 너희가 내 계명에 인간적으로 추가 된 교회의 계명을 성취하게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교회의 계명을 따르기 위해 염려하며 애를 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을 너희는 적게 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올바른 기독교적인 삶을 산다고 믿는다.

내 대적자가 세상에 준 오류는 얼마나 큰 오류인가! 왜냐면 사랑을 불타오르게 하여 가장 밝은 화염이 되게 하는 일이 너희의 유일한 이 땅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고 왜냐면 이 일은 너희가 한때 꿈꿨던 나와 연합이 되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사랑이 이런 연합을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기 위한 계명으로 너희에게 준 수단들은 이룰 수 없다. 이러 수단들은 형식적인 기도나 면죄부나 성스러운 의식이나 축복을 선포하는 일로써 단지 의식으로 외적인 것으로 여겨야만 하고 이 땅에서 그리고 저세상의 나라에서 너희에게 어떤 영적인 성공도 주지 못한다.

내 대적자는 내 사랑을 계명을 따르는 일이 주는 일을 사람들에게서 빼앗으려고 시도한다. 이를 위해 내 대적자는 외적인 것과 잘못 된 가르침을 통해 그들의 관점을 내 사랑을 벗어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든 것을 가장 긴급한 것으로 제시하면서 이런 시도를 한다. 왜냐면 대적자가 많은 희생자를 얻을 것을 알기 때문이고 대적자가 사랑이 사람들에게 극복하는 일을 요구하고 사람들이 자원해서 희생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또 다시 사랑을 가장 첫 번째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해야만 하고 나는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 계명을 기억할 수 있게 해줘야만 하고 나는 항상 또 다시 사랑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이 소용이 없음을 사랑으로 행하는 일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진지하게 영접받지 못하고 사람들은 사람이 첨가한 계명을 자원해 따른다. 왜냐면 이런 사람들에게 내 대적자가 아직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귀환을 모든 수단으로 막으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설교해준 내 사랑의 가르침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고 이 가르침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모든 사람은 이 가르침을 긴급한 것으로 깨달을 것이고 쓸모 없는 나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외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전통과 의식. 의식의 효과.

B.D. No. 6732

1957년 1월 10일

너희의 생각과 행동과 의지가 단지 전통적으로 채택 된 가치관에 의해 결정되게 하고 너희가 스스로 그런 가치관이 정당한지 어느 정도 정당한지 그런 가치관이 인간의 사고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그런 너희의 생각과 행동과 의지가 진실로 너희 사람들을 명예롭게 만들지 못한다. 너희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온전함에 도달해야 한다. 이일은 모든 각각의 사람들이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진지한 일이다. 그러나 그러면 그는 자신이 요구받는 일이 정당한 일인지 대해 스스로 의심하게 될 것이다.

그는 질문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전통들이 나로부터 나온 것인지? 그런 전통들이 변개되지 않은 진리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들에게 의해 진리가 변개되었는지? 왜냐면 이 땅에서 온전하게 되려는 진지한 의지가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의심스러운 질문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고 아주 많이 변형 된 가르침일 경우에는 특별히 의심스러운 질문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그런 의심을 사람의 심장에 두어 그를 황혼의 상태에서 빛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소위 전통에 많이 왜곡 된 영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왜냐면 나 자신이 이 땅에서 설교한 내 가르침으로부터 너무 많은 관습과 악한 습관들과 또한 잘못된 가르침이 나왔기 때문이다. 순수한 사랑의 복음과 내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뒷전으로 물러나게 된 반면에 인간이 추가한 내용이 긴급한 내용으로 관철되었고 사람들은 인간이 추가한 내용에 자신이 사로잡히게 하고 이런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옛날부터 전해진 것이나 전통적으로 채택 된 습관과 관습을 감히 흔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변명할 수 없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 그러므로 또한 영원 가운데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이 땅의 과제를 더 진지하게 받아드려야 하고 내가 완전히 무가치한 의식으로 만족하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무가치한 의식에 전혀 성체가 아닌 성체를 받는 일이 포함 된다. 왜냐면 거룩한 효과는 단지 사랑을 통해 생명력이 있게 된 믿음으로 나 자신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랑을 통해 나와 연합을 이룬다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나에 의해 풍성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서 모든 성사들의 축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는 영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그는 다시 그의 이웃에게 선생이요 선포자가 될 것이다. 그는 언제든지 하늘의 양식인 내 살과 내 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는 나와 가장 긴밀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의 사랑이 충만한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모든 세상 앞에 이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죄가 용서받아 죄짐이 그를 더 이

상 억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내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는 그의 사랑과 그의 믿음으로 생명력이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전통적으로 수행하는 의무를 행함으로써 이런 모든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 자녀의 생각이 그의 이 땅의 삶의 목적과 그의 과제로 향하게 만든다면, 이는 실제 좋은 일이다. 그러나 죽은 행동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항상 단지 그에게 사랑을 전파해야 한다. 사람이 이런 사랑의 가르침에 어떤 자세를 갖는지에 따라 그의 영적인 성장이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단지 사랑을 행하는 삶을 통해 그는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 단지 사랑의 삶이 그가 성사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모든 사람이 완전한 의지의 자유로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그러나 소위 내 뜻이라고 주장하는 요구와 계명에 의해 방해받는다.

그는 생명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이 생명력이 있게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모든 형식이 이런 생명을 죽이고 어떤 순전히 외적인 일이 내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혼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는 언젠가 자신이 잘못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변명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가 나와 내 나라를 얻기 원하고 항상 단지 내 뜻을 행하는 일이 그의 소원이면, 진지하게 온전하기 되기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수한 진리를 받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일

B.D. No. 8688

1963년 11월 29일

인간의 생각은 세상 쪽으로 향해져 있다. 그래서 영적인 가르침을 위해 항상 나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종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해준 영적으로 깊은 뜻이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해석한다. 내 가르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혼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에게 말을 할 때에 항상 말 안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초기에는 올바르게 이해를 하였지만 영적인 의미보다 세상적인 의미를 중요시하고 마침내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내 말은 순수하게 보존이 되지 못했다. 내 말을 통해 영적인 의미와 부합되지 않는 의식과 관습이 생겨나게 되었다. 내 말은 치료하는 능력을 잃게 되었다. 나의 말이 순수한 형태로 남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성취할 경우에 너희에게 축복을 약속하며 너희에게 영적으로 요구한 것들을 너희는 세상적인 의식으로 바꾸었다. 내가 너희 혼들에게 요구한 모든 것을 세상적인 형식으로 바꾸고 실행하며 너희는 이를 성사라고 부르고 이에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양심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인간이 만든 계명을 지킴으로써 은혜의 보물을 모았다고 믿게 되었다.

이것은 단지 형식이며 겉모양이 빛나는 것이며 너희 혼의 성장을 위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희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이런 너희가 스스로 만들었고 내가 너희 인간들에게 전혀 요구하지 않은 형식에 매여 있다.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거할 동안에 내가 말한 모든 내 말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절대로 외적인 형식으로 바뀌 치기 할 수 없는 것



이다. 너희는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 혼의 절대로 도움이 될 수 없는 외적인 관습에 만족해하고 있다.

세례 의식을 생각해 보라. 이것에 어떤 효과가 안타는지를. 너희가 단지 외적으로 실행한 것들을 영적인 성공으로 확신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유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나 종교적인 모임의 일원이 되는 것이나 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은 사람 스스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루어야만 하는 것들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의지로 자신이 속죄를 받게 해야 한다. 즉 단지 어린 아이에게 행해지는 세례식으로 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여기에 속해 있다. 자유의지로 의식적으로 나를 따르는 삶을 통해 사랑을 통해 생명력이 있게 된 믿음으로만 다시 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이것들이 내가 세운 교회의 특징이다.

재단에서 이루어지는 성례식과 고해성사를 생각해 보라. 너희가 무엇을 만들어 냈는가? 이런 외적인 것으로 너희가 죄 사함을 희망하는지 생각해 보라. 너희가 나를 모셔드려서 내가 너희와 너희가 나와 성찬을 나누는 것에서 내가 너희가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이를 나를 기념해 행하라. "는 내 말을 너희가 깊은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 한 너희가 사랑을 통해 나와 깊이 연합되어 나 자신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혼에는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하는 과정인데 너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라.

너희에게 영적으로 요구한 것을 너희의 혼만이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너희는 세상적인 개념을 혼합시켜 어떤 것을 만들어 냈고 너희에게 이를 요구하면, 너희는 내 뜻으로 여기고 열심히 이를 지켰다.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설명해줘야만 한다. 너희는 나에게 설명을 영접하지 않고 항상 열심히 인간들이 세운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 계명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계속하여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깨달을 수 없다.

너희 스스로 너희에게 내 말씀이라고 하면서 주어진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너희에게 족쇄를 채운 것이다. 너희는 내 말을 세상적으로 해석하면서 영적인 의미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오류가 생기는데 이 오류는 단지 너희가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해결될 수 있다. 사랑이 충만해지면 너희 안에 빛이 비추어지고 너희가 오류 가운데 있으면 이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주어진 인간이 세운 모든 계명과 성례식들은 어두운 영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세울 수 있는 것으로 너희를 잘못 인도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순수한 진리를 깨달음으로 오류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 오직 순수한 진리만이 혼의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단지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만이 다시 말해 내 사랑의 계명을 첫째로 지키는 자만이 이로 인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아멘

인간이 추가한 역사. 교회 출석.

B.D. No. 1375

1940년 4월 8일

**하**나님을 알려주는 모든 일은 사람이 가르침을 따르거나 실천한다면, 성공하게 되야만 한다. 그러나 가르침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형태가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한 사람에게는 더 수월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목표에 도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걸기가 아주 어려운 길을 택하고, 반면에 다른 길은 더 쉬우면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설정하지 않은 조건을 자신에게 부여한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인위적으로 추가된 각각의 가르침을 분별하는 일은 도움이 된다.

첫째로 교회 참석을 의무로 만드는 일이다. 이 일은 항상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영을 죽이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교회 참석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께 더 많이 향하게 된다는 관점은 아주 잘못된 관점이다. 이런 일은 오히려 가장 깊은 내면의 경험이 되어야 할 일을 기계적인 행동이 되게 하는 위험이 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구한다. 그에게는 교회에 가는 일이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연결을 찾을 수 있고, 이를 위한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는 경우에 단지 말씀을 듣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교회 방문의 목적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일은 단지 하나님의 전적인 동의를 얻을 것이다. 다른 모든 의식 행위는 크거나 적게 인간이 추가한 것들이고,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는 용어로 예배에 참석하도록 격려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실제 혼에 대한 작업과는 관련이 없는 의식에 참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해해야만 한다. 사람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일원의 자격을 얻기 위한 규정을 따르는 지, 어느 정도까지 따르는 지의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운 교회는 실제 걸 모습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 교회는 걸 모양에도 불구하고 가장 깊은 원리로 깨달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걸 모습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르침을 깨닫고, 그에 따라 사는 데, 장애물이 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걸 모양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는 않다.

사람들이 바로 많은 형식들을 거부하는 일을 깨닫기가 어렵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정한 계명을 성취시키는 일에 의존하여 영원한 축복이 달려 있게 절대로 만들지 않았다. 그런 예를 들면, 정기적인 교회 방문, 의식에 참석하는 일이다. 이런 의식은 마찬가지로 사람이 만든 연극과 같은 것이고, 인간의 혼에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영향을 주지 못한다.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거할 때 걸치레를 거부했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는 기적을 제외하고는 그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확인시켜 주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 생각

해야 한다. 주님은 오늘날 정당화할 수 있거나, 어떤 식으로 든 근거를 댈 수 있는 어떤 걸치레의 일을 한 적이 없고, 그런 의식들은 단지 사람들이 만들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깊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일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없고, 또한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준수하다는 증거로 결코 요구할 수 없는 일이다.

아멘

형식들. 하나님의 자녀권.

B.D. No. 1376

1940년 4월 8일

**하**나님의 뜻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로써 믿음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하는 잘못된 상태가 생겨났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핵심을 파악하고 있다. 이런 소수는 실제 기록된 계명을 지키고, 그러나 동시에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그들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 이런 연결을 통해 능력을 얻는다. 이 잘못된 관점이 자신의 혼을 상하게 하지 않을지라도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이 없이도 단지 그의 심장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길 구하고, 시도하면, 능력이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다.

반면에 긴밀한 연결이 없는 형식들은 어떠한 축복도 주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 하나님의 자녀권에 대한 질문에 입장을 한번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단지 가톨릭 신도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견해이다. 끈기 있게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항상 단지 자신과 자신이 행동을 엄격하게 점검하는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는 일은 진지한 일이고, 아버지는 이런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여긴다.

그러나 의무와 의무를 지키는 일이 모든 자유의지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보다 절대로 더 가치가 많지 않다. 강요는 절대로 자신의 의지가 일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 강요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가장 작은 자유의지로 자신의 창조주에게 헌신하는 일은 사람의 혼을 특별하게 성장하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실제 항상 자신의 뜻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의무적으로 자신의 뜻을 성취하라고 계명을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단지 사람이 자신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많은 것을 짊어지는 것만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비로소 사람의 의지가 복종하고, 의식적으로 하늘의 아버지와 연결되려는 추구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비로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뤄졌고,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의 아버지께 순종하려고 노력한다. 자녀는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아버지가 충만한 사랑으로 자녀를 아버지의 심장으로 영접하도록 자신을 변화시킨다. 다시 말해 사람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권을 추구한다.

아멘

**너**희는 항상 옳고 공정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특별한 믿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의 의지는 하나님을, 즉 선을 향해 있고, 그들에게 단지 올바른 깨달음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특정 교파에 속한 모든 사람의 가장 깊은 심장에서 깨어나야만 한다. 이런 내적인 깨달음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 그러나 반대로 내적 깨달음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없이도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룬다. 즉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이룬다. 이렇게 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구해야만 한다.

교회의 신앙 교리를 바탕으로 이런 요구사항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교회에 속하지 않는 일이 이런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권을 말할 수 있기 위해 먼저 자녀의 아버지와 관계가 확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교회나 저런 교회에 속하는 일이 자녀의 관계를 보장해주지 않고, 항상 단지 심장의 깊은 내면의 느낌이 결정적임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소속”이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추가한 계명을 성취하는 일과 같은, 정기적인 교회 출석이나, 기도문을 따라 하는 기도나, 아버지와 가장 깊은 유대가 그들을 생명력이 있게 만들지 않는, 단지 상징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단지 외적인 것에 따라 소속되었다고 해석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이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일에 쉽게 성공하기 때문이다.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하면 아버지께 헌신할 것이다. 그는 이전에 경직된 가르침을 통해, 사람 안에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키운 모든 신비로운 의식을 통해 그의 영의 눈 앞에서 세운 아주 많은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 돌아가는 길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이런 장벽은 쉽게 극복할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한 긴밀한 생각과 그를 향한 갈망이 이미 이 땅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은혜를 얻게 해준다. 유일하게 가장 깊은 내면의 느낌이 아버지와의 간격을 줄이거나 커지게 하고, 그들의 내면에 느낌이 없을 수 있는 외적인 의식이 아버지와의 간격을 줄이거나 커지게 하지 않는다.

아멘

함께 드리는 예배. 전통.

B.D. No. 1814

1941년 2월 16일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의 주님과 구세주와 접촉하고 싶은 깊은 소망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함께 드리는 예배는 실제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단지 전통을 통해 살아남은 관습을, 즉 가장 깊은 심장 속의 갈망을 적게 가진 가운데 관습을 따른다. 인간에게 실제로 아주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할, 그런 일이 기계적인 행위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연결을 확립하려는 자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런 일은 순전히 이성적으로 만, 행해진다. 즉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심장은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연결은 심장에서 확립되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이루는 일은 이 땅의 삶의 인간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의 출발점이었던 분에게 속한 느낌이 그 안에서 깨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원초적인 힘에서 분리된 적이 없었다. 그는 단지 이를 깨닫지 못했고, 그러므로 그는 멀리 떨어진 느낌을 갖는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의식적인 연결을 통해 걸음으로 보기에 존재하는 분리를 극복하고, 존재는 자신이 창조주와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깨닫는다.

참된 신자들이 이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모이면, 연합이 된 기도는 하늘 아버지께 도달하고, 하나님은 이를 기뻐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깊은 믿음이 아니라, 단지 특정한 전통적 요구 사항이 사람들을 모이게 한 곳에서는 그들의 생각은 적지 않게 다른 곳으로 향하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연합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사람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안에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보다, 단지 귀에 더 많이 들리고, 단지 사람이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노력하면, 영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짧은 함께 하는 예배 시간에 만족하고, 예배 참석을 통해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외적인 행위에 가치를 두지 않고, 자신을 향한 심장의 갈망으로 기준을 삼는다. 하나님을 향해 뛰는 심장은 시간이나, 외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이런 심장은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려는 자극을 느낄 때,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연결을 이룬다. 이런 심장은 내적인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고, 세상에 자신 자신의 믿음의 증거를 주기 위해 찾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과 창조주의 접촉의 긴밀성만이 중요하다.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들이 심장으로 창조주와 연합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비로소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된다.

아멘

성막.

B.D. No. 4519

1948년 12월 21일

**내**가 거하도록 좁게 제한된 그릇 안에, 이 땅의 물질 안에, 특정 장소와 특정 시간에 내가 머물 수 없지만, 사랑으로 형성한 모든 심장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이해하라. 사랑을 행하는 심장이 단지 나를 그 안에 모시고, 나의 임재로 인한 행복을 자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의 원래의 성분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표현되는 곳에 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땅의 그릇은 절대로 영원한 내 영을 모실 수 없다.

실제 무한의 전체를 채우고 따라서 모든 곳에 존재하지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절대로 제한된 그릇 안에 거하지 않는 내 성품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개념을 만드는 일은 단지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의 생각의 산물이다. 인류가 영원한 신성을 무엇으로 만들고 있는가! 이런 믿음이 어떤 영적인 빈곤을 보여주고 있는가! 사람들이 잘못 교육받은 교사들에 의해 얼마나 멀리 진리로부터 떨어져 있는가!

영이 깨어난 사람이 알듯이 아직 아주 낮은 수준의 성장 단계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거하는 물질적인 형체 안에 무한을 지배하는 영이 어떻게 거할 수 있느냐? 내가 사람의 심장에 내 임재로 상을 주면, 나는 성장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영적인 존재와 연결을 이룬다. 나는 사람 안의 영적인 존재인 혼을 나의 사랑의 힘으로, 내 자신으로부터 유출된 것으로 채운다. 사람의 사랑을 행하려는 의지에 따라 힘의 유입이 증가하여 이로써 온 심장을 채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이제 사람에게 임재한다. 나는 그를 사로잡는다. 그러나 그가 또한 모든 충만함으로 내가 그 안에 거하게 한다.

무엇이 나를 움직여 내가 실제 나에게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인 아직 죽은 물체에 안에 거하게 하겠느냐? 형체가 내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의 임재가 모든 형체를 녹여버릴 것이다.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이런 생각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런 가르침을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가르치도록 허용하지 않고, 그들이 믿도록 요구받는 것을 굳게 붙잡는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가장 높고 가장 존경해야 하는 대상으로 만든 죽은 대상에게 아주 큰 경의를 표하다.

순수하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의 심장이 단지 내가 머무르는 성전이다. 그러므로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형체에서 나를 구할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내가 머물기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하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심장이 사랑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영원한 사랑인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는 언제 어디서나 나를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다. 나는 끊임없이 그에게 임재할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 영이 그의 영과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형식과 의식. 올바른 예배.

B.D. No. 5571a

1953년 1월 6일

**해** 심을 찾고, 곁형체를 기뻐하지 말라. 모든 외적인 것들이 너희가 한발짝도 더 성장하게 하지 못하고, 너희가 단지 너희의 내적인 생명을 깨어나게 해야만 하고, 그러면 너희가 단지 영을 추구할 때, 영적인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시급하게 너희 사람들에게 말해주기를 원하는가! 너희가 아직 외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너희가 의식에 사로잡히도록 허용하는 동안에는, 너희가 아직 내면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 너희가 너희의 영의 눈을 내면으로 향하게 하면, 모든 외적인 것들이 너희에게 그림자처럼 역사하고, 너희는 눈을 감고 외적인 화려함과 의식으로부터 돌아 서게 된다. 왜냐면 너희는 내면에서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올바른 빛을 보기 때문이다. 나는 진실로 내적으로 추구하고, 나와 올바른 연결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하고, 진지하게 진실로 나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 빛을 밝혀준다.

나는 이런 사람이 나를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는 또한 내가 왜 영으로, 진리로 부름받기를 원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아직 이 세상에 속한 일은 영의 세계에 대한 장애물이고, 더 이상 물질적인 것이 없는 내 나라에 대한 장애물이다. 모든 물질이 아직 세상을 다스리는 자의 지배를 받고 있고, 너희 눈을 멀게 하는 물질의 화려함과 호화로우심을 너희에게 제공하고, 이로써 너희에게

나를 어둡게 만들고, 너희가 진정한 영적인 추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가 너희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아직 그의 소유인 모든 것을 활용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진지하게 나와 연결을 이루기 위해 시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작은 방으로 가서, 그 곳에서 나를 부르라. 즉 그는 침묵하는 상태로 물러나, 자신의 생각을 내면으로 향하게 한다. 그러면 그는 분명하게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반면에 세상이 아주 분명하게 그에게 다가가고, 항상 단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진정한 목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모을 수 있는 일을 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단지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방식으로 나를 선포하는 곳에서는 사람이 나를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직 모든 물질적인 요소를 가진 우상에게 경배하기 때문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서 온 나라가 아니다. 내 말씀은 아주 선명했고, 나와 내 나라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은 이를 이해할 수 있었고, 또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아직 나의 대적자에게 속한 세상에서 내 나라를 찾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올바르게 섬기기 원하면, 너희는 모든 외적인 것을 버리라. 단지 내 사랑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내 사랑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르라. 이로써 내가 그런 일로 인해 흡족하도록 나를 섬기라.

형식과 의식. 올바른 예배.

B.D. No. 5571b

1953년 1월 7일

**너**희는 내가 선포되는 모든 교회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르침을 체험한다. 너희가 이런 가르침이 너희의 귀로만 듣고 사라지게 하면, 이런 일은 너희에게 거의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가르침이 심장 안으로 스며들게 한다면, 너희 안에 놓여진 씨앗이 곧 발아되어 싹이 트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곧 발 전체가, 너희의 심장이 풍성한 식물로 채워지고, 너희 안에서 생명이 깨어나고, 너희에게 선포된 내 말씀인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 너희 혼은 성숙하게 되고, 너희가 온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 말씀을 너희에게 더 가깝게 해주는 모든 교회가 너희가 축복을 받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내 말씀을 영접하는 일이 첫 번째 조건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너희에게 제공되면, 말씀이 너희에게 제공이 되는 것이다.

너희 사람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대한 지식이 너희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너희가 그의 사랑의 계명을 완수해야만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그의 가르침을 배워야만 한다. 이런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너희에게 전해지는 곳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너희에게 전달되는 일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말씀을 가까이 해주고, 인간 예수로서 이 땅에서 살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준 나를 증거하는 모든 설교자들을 축복한다.

그러므로 일어났던 일인 십자가의 내 고통과 죽음과 내가 인간이 된 일과 일어난 내 구속역사에 대한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줘야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격려하고, 그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해야 한다. 이런 삶은 내 뜻과 일치하고, 어떤 교파가 이를 목표하는 지에 관계 없이 내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고, 내 사랑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고,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침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으로 느끼

는 일과 단순한 이 땅의 나의 삶과 다른 모든 것과 더 나아가 내 신적인 사랑 계명에 추가된 것은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나 자신이 이 땅에 설립한 교회의 참된 일원으로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랑을 가르치는 곳은 또한 스스로 사랑을 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즉 고통이 있는 곳에 고통을 줄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 재물을 주는 사람은 이웃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하고,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통을 완화시켜야 한다.

이런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 사랑의 가르침이 선포될지라도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직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은 말씀은 단지 공허한 말씀이고, 내 말씀이 아직 심장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 말씀이 아직 인간의 심장 안에서 생명력이 있게 되지 않았고, 씨앗이 돌밭에 떨어져 자라지 못한 것이다. 사랑을 행하는 삶 외에 어떤 다른 삶도 너희에게 축복된 영원한 삶을 줄 수 없다. 이런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아주 설득력 있게 설교되는 곳은 진실로 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다. 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실천되는 곳에서 올바른 예배가 드러지고, 이런 예배가 나를 기쁘게 하고, 너희가 예상할 수 없는 축복을 너희에게 준다.

아멘

올바른 기도와 예배.

B.D. No. 6280

1955년 6월 9일

어린 아이의 믿음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 내 귀에 닿고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런 특권을 이용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겉형체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기도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지 큰 위험이 그들이 내 귀에 도달하는 심장에서 나오는 말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큰 위험이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구하며 나를 찾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제 모든 겉모양의 형식을 버리고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 말하면, 내가 그들을 축복한다.

그러나 나는 생각이 없이 드리는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자주 내가 그 모든 것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건한 성품을 표현하지만 그러나 깊은 생각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말들을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영으로 진리로 나를 부르기를 요구했다. 왜냐하면 겉모양이고 겉형체이고 너희 사람들은 서로를 잘 속일 수 있지만 절대로 나를 속일 수는 없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혐오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텅 빈 보여주는 역사와 의식과 외적으로 드리는 예배로 나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보지 않는다. 반면에 나에게 드리는 단순한 믿음의 기도는 나에게 사랑스럽게 들리고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런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보낼 수 있고 그런 기도는 항상 나에게 도달할 것이고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단지 너희 심장 안에 나를 위해 제단을 세우고 제단 위에 사랑을 올리고 조용하게 그러나 긴밀하게 나와 단둘의 대화를 나누고 너희 자신을 나에게 의탁하고 내 은혜를 구하고 나에게 너희 심장을 드리고 항상 내 임재를 갈망하면, 나를 경배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이야! 그러면 너희가 영으로 진리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내 자녀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생각을 전한다. 그러



나 나는 어떤 겉모양도 싫어한다. 왜냐면 겉모양은 단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사랑이 없고 무관심한 성품을 가리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너희가 내가 사람들처럼 외적인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영예를 받기 원한다고 믿는다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인 나를 잘못 판단한 것이다.

나에게 모든 찬란함과 영광이 있고 너희가 단지 나에게 너희의 사랑을 응답하는 선물로 바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왜냐면 내가 단지 이런 너희의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사랑을 외적인 형식으로 나에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간의 심장 안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또한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증명하는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심장은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영예이다. 사랑하는 심장은 영으로 진리로 말하고 나는 단지 사랑하는 심장을 내 모든 사랑이 향하는 내 자녀로 여긴다. 이런 자녀는 또한 이제 모든 것을 나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가 나를 믿기 때문이고 내가 그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거짓 예배

B.D. No. 8829

1964년 7월 14일

**변** 개 된 가르침에 설명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나로부터 나왔다고 주장되어지는 것들은 사람들이 인간 편에서 첨가 된 부분에만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내 가르침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항상 또 다시 나는 너희에게 단지 사랑의 가르침만이 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강조해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의 이 땅의 삶의 전적인 목적은 사랑으로 변하는 것이다. 너희가 내 사랑의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하면, 내 눈에는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전혀 가치가 없는 외적인 것들인 모든 형식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1964년 7월 14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람들이 단지 습관에 따라 이루지는 영적인 침체를 부인할 수 없는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사람들에게 가르친 단 한가지의 계명에 따라 자신들이 사랑을 행하려는 준비는 하지 않는 걸보기 주일예배에 보내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의무를 다 하듯이 드리는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이런 "주일 예배"가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는 모든 사랑이 없는 행동들을 더욱 열심히 교회 다니고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진 의식들을 지킴으로써 다시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너희는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한다고 믿지만 오류 가운데 있다. 왜냐면 영의 음성을 듣는 자가 너희 가운데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너희 인간들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대적자의 영향 아래 서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사람들 인도하는 자로 자신을 소개하는 너희는 자신 안에서 영이 역사를 하는 것을 방해한다.

만약에 영이 그를 가르쳐 주면, 너희의 모든 하는 일에 전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너희는 그를 이단으로 정죄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진실로 진리를 사람들 가운데 전하라는 부름을 받은

내 제자이다. 그는 내가 내 영의 흐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써 너희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 선택한 자이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를 단지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너희는 자기 사랑과 싸워야 하고 항상 단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행해야 한다. 너희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축복을 체험할 것이다. 너희는 올바른 생각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영은 너희를 너희의 내면으로부터 가르쳐 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잘못 된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너희는 자주 침묵하는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는 주일 예배에서보다 더 많은 축복을 체험할 것이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떤 오류를 인간의 작품으로 깨닫는다. 만약에 그가 깊게 생명력 있게 믿으면, 내가 이런 믿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이런 믿음 안에서 나와 연합이 되어있고 내 눈 앞에 좋게 보이는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그들의 사랑의 정도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그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번개와 같이 깨달음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매우 적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관습 따라서 나온다.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는 생명에 이를 수 없다. 왜냐면 그에게는 믿음을 생명력있게 만드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가 위로부터 항상 단지 사랑을 설교할지라도 인간들은 영을 떠났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말해야 할 것을 듣지 않는다. 그들은 심판의 날에 멸망받을 것이다. 왜냐면 사랑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축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올바른 예배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드리는 예배이다.

B.D. No. 8673

1963년 11월 14일

**만**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생각하고 행한다. 그러나 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부족하다. **나** 그들은 나를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나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부족하다. 그들은 나를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그들의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신뢰하는 가운데 나에게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나를 전능한 멀리 떨어진 인간으로써 그들 스스로도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으로 본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더 두려워한다. 왜냐면 그들은 내 성품을 아직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랑의 정도가 결정적이라는 것을 사랑은 스스로 사랑인 아버지를 깨닫게 함을 그럴 때 그가 내 자녀로서 나를 부르고 사랑 안에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다시 설명해 줘야만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신앙 안에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면 이런 삶은 그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한 사람에게 아직도 비록 내 전능함 때문에 두려워해야만 하는 멀리 떨어진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그가 사랑 안에서 나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적다. 그는 단지 그가 속한 교회에서 그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형식으로 수행할 것이다. 요구에 합당한 그러나 그들의 이 땅의 삶의 목표요 목적인 그의 성품을 변화시킨다는 보장이 없는 움직임은 하게 하는 동인은 단지 교육에 있다.

만약에 너희 사람들이 이제 운명적인 일을 당하면, 이는 단지 너희가 생명력있게 되게 너희가 단지 형식적인 것을 벗어날 수 있게 너희를 창조하신 분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너희가 왜 이 땅의 삶을 사는지 생각할 수 있게 그리고 너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권세에 자유의지로 헌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면 나에게 무관심한 자세는 너희에게 영적인 성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은 삶 가운데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너희가 설명 받기를 원하면, 너희는 확실하게 설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너희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생각을 해야만 한다. 너희는 내적으로 사랑을 하게 자극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의 양심을 통해 말하며 먼저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은 내 음성이기 때문이다. 양심의 소리가 너희에게 하라는 것을 너희가 이제 따르면,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해당하는 연결을 나와 이루게 된다.

왜냐면 내 낮은 음성이 항상 너희가 사랑을 하게 격려하기 때문이다. 이를 따르는 것은 깨달음의 빛을 확실하게 주고 사랑 자체인 내 성품을 이미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어떤 형식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너희의 성품과 행함은 생명력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단지 형식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너희는 스스로 이 땅의 삶을 병행해 두 번째의 삶을 살게 된다.

너희는 영적인 길에 들어선 것이다. 왜냐면 이제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의 결과로써 내적으로 너희를 나에게 인도받기 때문이다. 이로써 사랑을 하게 하는 것, 사랑이 가르치는 것, 사랑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고 내 동의를 얻는다는 것을 너희는 알게 된다. 왜냐면 사랑은 진리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이 세상에서 내 대리자로서 이웃들 나에게 인도할 사람들 혼의 성숙의 척도이다. 그에게 사랑이 없는 동안에는 그의 설교도 능력이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도 축복을 줄 수 없는 이는 단지 형식적이고 생명력이 없는 예배가 될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멀리서 있기 때문이고 절대로 내 귀에 도달할 수 없는 소리로 단지 말하기 때문이다. 사랑 안에서 만들 수 있는 나와서의 긴밀한 관계가 비로소 너희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을 생명력이 있게 만든다. 이럴 때 전에 너희에게 사랑이 부족한 동안에는 죽었던 너희 스스로 비로소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항상 단지 외적인 형식이다. 너희 사람들이 실제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지라도 그러나 나에게 대한 올바른 자세를 찾지 못하는 한 내가 임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너희는 먼저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나와야만 하고 신뢰 가운데 단 둘이서 대화를 해야만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임재해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너희의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왜냐면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려고 항상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지 외적인 형식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그게 확실하게 임하게 될 내 임재를 온 심장으로 갈망한다.

나는 단지 너희가 생명에 도달하기 원한다. 나는 너희가 교육을 받았지만 전혀 가치가 없는 너희 혼에게 어떤 유익함도 주지 못하고 주지 못하게 남을 전적으로 소용없는 습관과 형식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깨달을 때 비로소 너희는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 땅의 사람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항상 단지 사랑이 이룰 수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성찬식....

B.D. No. 0764

1939년 1월 29일

**너**의 삶의 좌우명이 "나는 항상 모든 일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기 원한다."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축복이 너의 모든 길에 함께 할 것이다. 아버지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받으라: 가장 거룩한 제단의 의식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 그러나 이 의미를 지혜롭게 이해해야 만한다. 너를 통해 사람들에게 아주 자주 논쟁거리가 된 질문에 대한 선명함을 주려고 한다면, 너의 주변에 모든 잘못된 것과 오류를 너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영적인 친구들로 구성된 보호벽이 너를 둘러싼다.

시간이 감에 따라 사람들의 올바른 생각 안에 전혀 잘못된 관점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로써 서로 충돌하고, 다른 의견을 갖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신적인 구세주 주님의 동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모순이 되는 규정이 선포되었다. 거룩한 성찬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으로 확실하게 영접하는 일을 생명력 있게 표현한 것이다.

살을 먹는 사람은, 다시 말해 굶주린 심장으로 나의 말을 자신 안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다시 말해 나의 말을 통해 진리를 영접하고 전적으로 진리 안에서 나의 말대로 사는 사람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이는 나의 살이요, 이는 나의 피이다."라고 한 나의 말을 이해해야 한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 빵이 필요한 것처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포도주가 연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것처럼 혼이 진리를 자신의 내면으로 영접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가 혼을 강하게 한다. 빵과 포도주가 나의 살과 피로 바뀌어 진다고 말한다면, 이 말은, 만약에 나의 말을 따른다면, 다시 말해 먹고 마신다면, 이로써 사람이 나의 말을 통해 나 자신을 자신 안으로 영접한다면, 나의 말이나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으로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의 말은 사랑을 가르치고, 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전적으로 모두 그의 심장으로 영접하고, 이로써 나의 식탁에서 나의 빵과 나의 포도주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된다. 이는 나의 말의 실제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의식을 통해 나의 말의 인상 깊게 만들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제 의식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의식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축복을 잃은 것으로 선포했다. 이로써 외적인 형식은 유지가 되었으나, 깊은 의미를 잃었다. 성찬식은 항상 더욱 형식이 되었다.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더 이상 심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반면에 형식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믿는 가운데 주님의 재단으로 나간다면, 실제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이 전에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키지 못한,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안에 거할 수 있

느냐! 나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영접하고, 심장 안에 모시려는 사람은 나의 빵을 먹어야만 하고, 나의 포도주를 마셔야 만한다. 그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을 양식으로 갈망해야 만한다. 그는 생명력이 있는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생명력이 있는 진리인 포도주를 마셔야 만한다. 그러면 그는 비로소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는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말로 세운 성찬식은 단지 이와 같이 이해해야 하고, 다르게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너희 자신의 생각으로 나의 말을 해석하고, 나의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너희가 단지 더욱 열심히 형식을 지키려고 애쓴다면, 너희는 단지 더욱 순전히 형식적으로 나의 빵과 나의 포도주를 받을 것이고, 그럴수록 내가 더 적게 함께할 것이다.

이로써 너희는 나 자신을 영접할 수 없을 것이고, 단지 너희의 상상으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단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말대로 사는 삶을 통해 나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는 곳에서만, 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이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기 때문이다: 나의 뜻을 성취시키고, 나를 섬기는 사람과, 모든 세상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과 함께 내가 진실로 성찬을 나누기 원한다. 그는, 내가 그를 배부르게 해주기 원하는, 내가 그에게 그의 지분을 주기 원하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는 나에게 의해 먹게 될 것이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하늘의 양식을 받을 것이다. 아멘

주의 만찬. 영적인 감각. 육체와 피.

B.D. No. 4379

1948년 7월 18일

**주**님의 식탁에서 먹으려는 계속되는 갈망은 주님의 사랑을 보장받게 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원할 때마다 나와 함께 식탁에 참여하도록 너희를 초대한다. 내 식탁은 항상 굶주리고 목 마르고 쾌활하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되어 있고, 그들은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에서 오는 만나로 자신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 식탁에서 먹는 모든 일은 연합이고, 나와 하나가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은 내 살과 피를 제공하지 않고는, 나의 말씀의 힘과 함께 나의 말씀을 제공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나의 말씀을 직접 또는 내 일꾼을 통해 너희에게 주어져 받은 너희가 이런 나의 말씀을 갈망하는 가운데 너희 심장 안으로 영접하면, 너희는 소통하게 된다. 그러면 내 영이 너희 안의 영의 불씨와 연결을 이루고, 혼인이, 연합이, 영적인 친교가 이뤄진다. 그러면 나는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고, 너희에게 양식과 음료를 주고, 너희와 함께 만찬에 참여한다. 너희는 내가 "받아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니라." 라는 말과 함께 양식을 떼어 주고 포도주를 건네 준 내 제자들과 같은 과정을 경험한다.

너희는 이제 내가 이 말에 어떤 의미를 넣었는 지 이해하느냐? 너희가 내 식탁에 참여하는 일이 얼마나 말할 수 없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내 살과 피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너희는 혼을 위한 양식을 먹어야만 한다. 이로써 너희 혼이 성숙하게 되어 하고, 혼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아야 한다. 혼은 지속적으로 단지 나에게서 직접 얻을 수 있고, 혼이 나와 연결을 이룰 때 내가 언제든지 주는 힘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나는 양식을 떼어 혼에게 제공한다. 혼이 나의 살인 나의 말씀을 먹으면, 내가 축복한 나의 말씀과 함께 혼에게 힘과 피가 흘러 간다.

내 손님이 되기 원하고 혼의 양식을 갈망하는 사람은 굶주리고 피폐해질 필요가 없다. 나 자신이 그에게 다가가 그를 초대하고, 나는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그가 나를 위해 열 때, 나는 그에게 가서 그와 만찬을 나눈다. 나는 내 식탁에서 그가 먹게 하고, 그는 진실로 배부르게 될 것이고, 절대로 궁핍으로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말한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나는 나의 제자들을 가르쳤고, 나의 제자들은 나를 이해했고, 나의 말씀을 세상에 전했다. 사람들이 올바르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했고, 나의 말씀을 완전하게 깨달은 가운데 내 뜻에 따라 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나의 교회는 완전히 나의 생각대로 세워졌다. 그러나 열심이 지나친 나의 대변자들에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았고, 그들은 세상 앞에 드러내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단지 혼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 일을 이웃 사람에게 보여주게 되었고, 외적인 행동이 이와 결부되었다. 초기에는 실제 사람들이 영으로 이 일을 행했고, 내 뜻과 내 뜻을 성취시키는 일에 대해 진지했기 때문에 비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변했고, 이런 변화와 함께 내 교회의 본질도 변했다.

가장 깊은 내적인 체험이 되어야 할 일이 외적인 일이 되었고, 외적인 의식이 우선이 되었고, 영적인 친교의 단순한 과정이, 나와 연합과 나의 말을 직접 받는 일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나 자신이 선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영을 통한 나의 직접적인 역사를 약속했을지라도, 말씀이 육신이 된 나 자신이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에서 오는 만나로 먹일 것에 대해 알려주었을 지라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나의 말씀을 직접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까지 깊은 영적 의미를 잃게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나의 말의 단순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착각 가운데 단순한 설명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듣고 이해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깨닫게 될 것이고, 진리가 그를 깨우쳐 줄 것이다. 그는 나 자신과 연결을 확립하기 위해 추구할 것이고, 내 손님이 될 것이다. 나는 그와 함께, 그는 나와 함께 만찬에 참여할 것이다.

아멘

성찬

B.D. No. 5384

1952년 5월 6일

**영**적인 성찬과 영의 불씨와 영원한 아버지 영과의 연결은 단지 사랑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너희는 또한 긴밀한 기도를 통해 너희의 생각으로 나와 연결시킬 수 있고,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희에게 다가간다. 그러나 너희에게 사랑이 없는 동안에는 부름은 먼 곳에서 머물게 된다. 그러면 아직 긴밀한 교제가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교제는 사랑을 행함으로 즉시 이뤄진다. 이로써 너희가 동시에 나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나와 성찬을 함께 할 수 있다. 즉 나 자신이 너희의 혼의 양식을 너희에게 제공할 수 있고, 하늘의 양식인 내 말씀을 제공할 수 있다. 너희가 나를 너희 안에 임재하게 하면, 즉 나와 연합을 이루면, 너희는 단지 말씀은 영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 소통은 살과 피인 자체에 힘을 가진 내 말씀을 내 손에서 받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절대적으로 사람의 심장이 사랑으로 충만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임재하는 일

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 임재에 대해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형제로 여기지 않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고 이로써 이웃이 아버지의 자녀인 아버지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영원히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없다.

사랑이 유일하게 자녀를 아버지와 연결시키고, 사랑을 통해 사람이 비로소 자녀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너희는 선명하게 깨달으라.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의 식탁에 있는 좋은 양식을 먹고 마시고, 영원히 더 이상 고난을 겪지 않게 된다는 것을 너희는 선명하게 깨달으라. 내 말씀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이고, 내 말씀은 진실로 쾌활하게 하고 힘을 준다. 내 말씀이 들리는 곳에는 또한 내 임재가 증명이 된다. 반대로 말해 힘의 나타남이 없이는 내 임재를 생각할 수 없다. 나 자신이 힘이요 빛이기 때문에 나는 또한 사랑을 행함으로 자신 안에 내 임재를 허용하고, 내가 그 안에 임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 자신을 빛과 힘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빛과 힘은 내 말씀에서 나오고, 혼은 높이 성장하기 위해 빛과 힘이 필요하다. 즉 사람이 나와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그가 내 손님일 때, 즉 나와 가장 긴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그의 사랑이 응답을 받게 되면, 내가 혼에게 주는 양식이 빛과 힘이다. 이런 일을 유일하게 성찬으로 이해해야만 하고, 나는 너희가 이런 일을 주의 만찬으로 이해하기를 원한다. 다음과 같은 말로 내가 만든 성찬에 너희 모두를 초대한다: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는 내 살이요. 내 피이다." 너희는 내 손에서 너희 혼을 위한 양분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단지 사랑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나와서의 긴밀한 연결이 필요하다.

아멘

주의 만찬 때에 사용하는 말씀.

B.D. No. 6717

1956년 12월 18일

**너**희는 아직 자주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제 진리에 합당하게 대답해야만 하고 너희는 항상 내가 내 영을 통해 너희를 가르쳐주기를 구해야만 하고 내가 너희에게 올바른 생각을 주기를 구해야만 하고 너희가 말하도록 요구받으면, 너희가 올바른 말을 하도록 나에게 구해야만 한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에게 진리가 전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내 빛의 전달자들을 깨우쳐주고 그들이 잘못 된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항상 그들의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방어하려는 의지를 지원할 것이고 그들의 순수한 진리에 대한 느낌을 강하게 하고 이로써 항상 의견의 차이와 영적인 성격의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게 한다.

모든 것이 나에게 알려져 있고 내가 모든 의심이나 또는 의문을 제기하는 생각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또 다시 이 땅의 사람들과 저세상의 혼들에게 모든 의심하는 질문을 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로써 그들이 진리에 합당한 대답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영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이 제기 된다. 이 땅의 사람들은 아직 세상적인 생각과 목표로 인해 너무 산만해져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들어오는 일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또한 다시 자주 영적 영역이 큰 침체가 되는 원인이다. 왜냐면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



해 오류가 거부되고 또한 이제 자주 모든 믿음의 가르침이 거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류가 전적으로 믿음이 없는 상태로 이끌 수 있다.

그러나 진리는 그런 의심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에 대한 말씀에 대해 항상 또 다시 설명하는 일이 특별하게 중요하다. 너희 사람들이 주의 만찬에 대한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의식을 내 뜻으로 여기게 만들고 이런 의식을 행하지 않는 일을 죄로 여기게 하고 행하지 않은 일을 벌을 받아야 할 일로 정하고 너희가 이제 이런 내 말씀이 의미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게 된다.

한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만든 규칙과 관습을 모든 열심으로 따르고 다른 사람은 이를 무의미한 것으로 깨닫고 내 말씀을 완전히 버린다. 내가 이런 말씀을 통해 너희 사람들에게 너희의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인 나와 긴밀한 연합을 맺도록 권면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 이런 말씀은 아주 큰 의미가 있었고 아주 큰 의미가 있고 아주 큰 의미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지 이런 긴밀한 연합을 통해서만 너희가 온전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빛과 힘을 내 말씀의 형태로 나에게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너희 사람들은 이제 순전히 외적인 과정인 내 살과 피라고 여기는 양식과 포도주를 받는 일을 통해 나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는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너희의 잘못 된 생각은 항상 또 다시 수정돼야만 한다. (1956년 12월 18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으로 형성시키기 전에는 나는 너희와 연결을 이룰 수 없다. 사랑은 비로소 나와 나의 연합을 이루고 그러면 내가 비로소 너희와 성찬을 나눌 수 있고 내가 하늘의 양식과 내 말씀과 내 살과 피로 너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다.

이제 나를 기억하여 성찬을 나누라고 한 말씀은 내 제자들이 내가 그들에게 나눠준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나눠주라는 요청이었다. 내가 그들에게 제공한 양식과 포도주를 그들은 나로부터 풍성하게 받았다. 왜냐면 내가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지식을 전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내 말씀을 풍성하게 제공했고 그들은 이제 내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했다. 그들은 내 말씀을 전해야 했다. 이로써 사람들이 나에게 대한 지식을 얻게 해야 하고 그들이 나를 잊지 않게 해야 한다. 인류는 나와 내 구원의 역사에 대해 알게 돼야만 한다. 왜냐면 인류가 단지 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축복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기념하여 성찬을 나누라"는 말씀을 통해 내 제자들에게 이웃에게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서 오는 만나인 내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직접 주었다.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영적 양식의 상징으로 이 땅의 양식과 이 땅의 포도주를 내가 내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나를 이해했다. 왜냐면 내가 자주 그들에게 상응으로 말했기 때문이고 내 영이 그들이 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는 내 살이니" 라는 말과 함께 양식을 제공했고 "이는 내 피니라" 고 한 말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이를 통해 내가 한 말의 의미는 힘을 가진 내 말씀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너희 사람들을 위해 육신이 된 말씀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나로부터 성찬을 받고 나 자신으로부터 내 말씀을 받는 일의 중요한 의미를 전혀 모르게 되었다. 내 말씀은 혼이 생명을 얻도록 돕는 혼에게 유일하게 올바른 양분이다. 사람

들은 비유를 따라 단지 주님의 식탁으로 가는 일로 만족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으로 형성하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을 성취시키지 못하면, 그들은 그런 외적인 행동으로 절대로 나 자신이 그들과 연합하게 만들 수 없다.

두 번째 조건은 사람이 내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심장으로 갈망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러면 그가 비로소 양식을 먹기를 갈망하게 되고 그래야만 비로소 그에게 혼을 위한 양분이 제공될 수 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게 된다. 육신이 된 말씀 자신이 자신을 그에게 제공하고 그는 이제 내 식탁에서 배부르게 되고 마시게 되고 그는 내 손님이 될 것이고 나 자신이 약속한 대로 내가 그와 함께 성찬을 나눌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임했을 때 말씀 자신이 이 땅에 임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람들에게 주었고 내가 단지 제한 된 시간 동안 이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나 자신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내 말씀을 그들에게 계시해주었고 그들에게 나를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내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부여했다. 사람들이 내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나와 가장 긴밀한 연결을 이루고 내게서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는 상태가 되게 했다.

살과 피는 어떤 생명력 있는 것이다. 어떤 생명력 있는 것이 단지 죽은 혼을 살릴 수 있다. 내 말씀은 또한 너희에게 빈 문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내 말씀이 너희를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너희가 내 식탁에서 너희 자신을 쾌활하게 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제공하는 생명과 힘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것이고 너희는 건강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이 내 말씀에 부여했던 의미는 생각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사람도 만족시킬 수 없다. 왜냐면 그런 의미는 혼란과 어두움을 불러일으키고 빛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겉형식을 지키는 일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를 향한 긴밀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긴밀한 사랑이 전제 조건을 성취시키는 곳은 나와 연결이 이뤄지고 주의 만찬의 과정이 더 이상 공허한 형식이 될 필요가 없다. 왜냐면 그러면 나 자신이 혼에게 양식을 주고 혼이 내 말씀 안에서 이제 강하게 되는 일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이런 강하게 되는 일이 혼에게 생명을 의식하게 한다. 왜냐면 사람이 진실로 내가 이제 단지 내 살과 내 피로 올바른 성찬을 베풀 수 있는 내 살과 내 피를 누리기 때문이다.

아멘

축복에 대한 설명

B.D. No. 8728

1964년 1월 17일

**만**약에 너희가 너희를 나와 내 은혜에 맡기면, 너희에게는 모든 것이 너희 혼의 구원을 위해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에 대한 내 은혜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내 은혜로 내가 항상 너희의 인도자로서 너희 옆에 동행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너희 자신에 대한 책임을 벗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한 동안에는 너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너희는 연약하고 너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 너희는 항상 너희 옆에 함께하는 너희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는 만약에 길이 좁고 위험할 경우에 너희가 깊은 곳으로 빠지지 않게 보

호해주는 한 분이 필요하다. 이 한 분에게 너희는 항상 너희를 맡겨야 한다. 너희는 그에게 보호와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너희는 그에게 그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행동을 축복해 주게 요청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 자신이 너희의 도움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염려 없이 너희의 이 땅의 길을 가기 위해 너희 자신을 그에게 드릴 수 있다.

너희는 내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루라도 나에게 내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시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로써 너희의 모든 길이 올바르고 너희가 보내는 모든 날이 아주 좋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삶은 이제 혼의 성장을 보장한다.

왜냐면 이제 너희가 나에게 전적으로 모두 너희를 맡기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나에게 드렸고 나 없이는 너희 삶을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축복이 전적으로 중요한 요소이고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내 축복 안에서 사는 삶은 단지 올바른 목표인 최종적으로 나와 하나가 되는 데 도달하게 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에게 구하는 의식적으로 나에게 축복을 구하는 누구에게도 내 축복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내 축복은 내 사랑의 힘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내 축복은 자기의 자녀를 올바른 목표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인도하심이다.

너희는 진실로 너희가 시도하는 일에 항상 나에게 축복을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할 수 없다.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나는 이 기도를 너희에게 성취시켜 줄 것이다.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나는 너희의 생각을 올바르게 인도할 것이다.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너희는 드러나게 내 도움을 체험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나에게 너희가 나를 내 사랑을 갈망한다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나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에게 항상 내 축복을 보장하는 내 임재를 갈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축복은 단지 나만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면 축복은 사랑이 사랑의 대상에게 주기를 원하는 은혜의 비추임이기 때문이다. 이 은혜의 비추임은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단지 나 자신만이 축복을 줄 수가 있다. 너희 사람들은 이제 나에게 구하고 은혜의 비추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 나에게 부탁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스스로는 축복할 수 없다. 왜냐면 너희 스스로 적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너희가 나누어 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단지 연약한자와 능력이 없는 자들을 위해 내가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게 기도할 수 있다. 너희는 나에게 내가 축복하게 다시 말해 내 은혜의 능력을 부여하게 부탁할 수 있다. 항상 너희가 도우려는 이웃을 위한 침묵 가운데 드리는 기도면 충분하다.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그의 연약함과 실수를 심장에 두는 것이다. 너희는 이 사람들을 위해 나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흐름을 구하는 것이다.

만약에 사랑이 너희들로 하여금 이런 기도를 하게 했으면, 연약한 사람의 의지가 나에게 공개적으로 저항을 하지 않으면, 나는 확실하게 그에게 부여할 것이다. 항상 연약한 자와 어쩔

줄 몰라 하는 자와 죄악 된 자들을 위해 긍휼을 베풀어 주는 너희의 사랑이 결정적이다. 모든 고요함 가운데 드리는 이런 기도는 그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축복이 분배 된다고 믿는 단지 형식만을 실행하는 모든 볼 수 있는 외적인 형식을 만든 것들은 내 축복을 얻기 위한 긴밀한 연결과 깊은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신들의 혼의 구원에 큰 성공을 소망하는 대중 앞에서 행해지는 내 신적인 사랑의 힘이 흘러가지 않고 내적인 축복감도 느낄 수 가 없는 큰 축복의 행사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왜냐면 생각이 단지 세상을 향해 있는 나와 깊은 연결이 되어있지 않은 이런 대중이 모인 곳에서는 내 임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깊은 나와 내적인 연결이 나에게 긴밀하게 구하는 이웃에게 내 은혜로 주어진 것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런 축복의 행사를 하면서 나를 섬긴다고 믿거나 자기 이웃을 돕는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이런 내적인 연결을 포기해야만 한다. 신실하게 너희의 이웃을 위해 중보 기도하라.

선한 생각으로 그들과 함께 하라.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축복하는 행위를 할 때에 너희 자신이 그들에게 내 은혜에 흐름을 줄 수 있다고 믿지 말라. "축복한다"는 말이 이미 형식적인 개념이 되어 버렸고 볼 수 있는 의식이 되지 말아야 할 심장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와야 할 것이 이웃들을 선하게 중보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으로 밖에 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너희는 내가 어떠한 외적인 형식을 좋아하지 않음을 안다. 모든 외적인 형식은 곧 그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잃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내적인 생각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이웃들을 위해 능력이 주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항상 내 심장을 기쁨으로 채우는 일이다. 이 일은 어디서든지 외적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곤경을 줄여보려는 애쓰는 것도 내 심장을 기쁨으로 채우는 경우이다.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도우려는 모든 의지는 이미 축복된 생각이고 내가 이에 응답하여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 심장에 부탁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 보호함과 내 은혜를 보장할 것이다. 왜냐면 어떤 사람도 내 도움이 없이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런 도움을 너희 자신을 위해 구해야 한다. 그러나 나와 직접 연결되기 위해 그들 스스로 나와 깊이 연합이 되어 내가 그들에게 내 영원한 사랑의 은혜의 흐름을 비출 수 있기 전에 큰 힘과 은혜가 필요하지만 너무 작은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면서 도와야 한다.

너희는 내 축복이 필요하고 너희는 너희가 항상 나를 영접할 수 있게 너희에게 능력을 채우고 너희에게 내 은혜를 선물해주길 구하면서 이 축복을 날마다 새롭게 구해야 한다. 같은 것을 너희는 사랑으로 하는 중보 기도 가운데 나에게 너희의 이웃을 위해 구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그를 위해 나에게 내 축복을 구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기도를 너희는 너희의 골방에서 행해야 한다. 어떤 사람도 너희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시를 볼 필요 없다. 왜냐면 외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모든 것은 쉽게 형식이 되어 본질적인 의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기도는 깊고 짧아야 한다. 그래서 기계적인 기도로 변질되므로 곧 가치를 잃게 되어 너희들로 하여금, 유일하게 성장하게 도와주는 올바른 추구를 하는 것으로부터 너희가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아멘



세례에 대해.

B.D. No. 6611

1956년 8월 2일

너희는 말씀을 받는 큰 은혜를 측량할 수 없다. 너희가 항상 단지 나에게 설명을 구하면, 너희에게 모든 질문에 대한 응답이 주어지고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은 사라질 것이다. 내가 실제 그런 질문에 생각을 통해 대답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자주 그런 생각이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의 의심을 물리치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말씀을 받는 은혜를 활용하면 너희에게 전해진 말씀이 너희를 행복하게 한다.

너희 사람들이 가진 질문들이 아직 많고 너희가 설명을 받기 위해 단지 나에게 믿음으로 요청하는 일로 충분하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드물게 그런 요청을 나에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큰 은혜를 아직 완전히 의식하지 못한다. 모든 인간의 혼은 철저한 정화가 필요하고 혼의 모든 폐기물을 정화 하고 혼을 상쾌하게 하고 쾌활하게 하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목욕이 필요하다.

모든 인간의 혼은 스스로 이런 정화시키는 일을 행하거나 또는 정화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고 혼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영원히 나에게 머물 수 있기 위해 자신이 돼야만 하는 것처럼 자신이 전에는 되지 않았다는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목욕은 단지 외적인 목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욕은 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역사이고 사람의 성품의 변화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역사이다. 그러므로 사람 자신에게 자신이 늪에서 빠져나왔다는 확신을 주고 늪에서 나와 완전히 깨끗해지고 상쾌하게 하는 목욕을 했다는 확신을 준다.

그러나 맑고 상쾌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물은 죽은 하천의 물이 될 수 없고 이 물은 흐르는 물이고 생명력이 있는 흐름이어야만 하고 이 물은 정화 하고 활력을 주는 힘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생수가 필요하다. 너희는 또한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고 있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생수가 흐르는 근원으로 나오라고 요구하고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가 내 사랑의 바다에 발을 들여 놓기를 원하고 내 사랑의 바다 속으로 잠수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나 자신에 의해 내 말씀으로 너희에게 세례 받기를 원한다. 내 말씀이 유일하게 너희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내 말씀이 유일하게 너희의 혼을 정화 하고 새롭게 살아나게 하고 너희에게 비로소 올바른 생명을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내 안에서 나온 생명수인 내 말씀을 전하라는 의미 외에는 다른 어떤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근원으로 가야만 한다. 사랑 자체인 아버지가 너희에게 말씀을 제공하고 너희가 말씀대로 살고 그로 인해 너희 안의 너희에게 가장 밝은 깨달음을 주는 영이 너희가 가장 깊은 지혜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맑은 물이 몸에 미치는 효과와 유일하게 동일한 효과를 가진 이런 말씀이 너희 혼에게 필요하다. 다시 말해 혼이 목욕을 통해 강하게 되어 요구받는 모든 일에 적합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 이런 말씀이 너희 혼에게 필요하다. 그러므로 내 제자들은 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고 사랑으로 가장 귀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해서 그들 안의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고 그들 안의 영에게 생명을 줘야 한다.

그러나 생명수의 근원은 단지 내 안이고 나 자신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근원이고 모든 사람이 내 사랑의 우물로 내려와 이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또한 자신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돼야 한다. (1956년 8월 2일) 이런 역사는 내가 이 땅에 세운 교회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 모든 사람이 받아야만 하는 세례이다. 그러므로 먼저 자유롭게 내 사랑의 물결 속으로 내려 가고 내 생명력 있는 말씀을 영접하고 이로써 자신의 혼을 정화시켜 내 임재를 가능하게 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너희의 의지가 필요하다.

내 말씀은 항상 단지 영적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외형적인 형식이 절대로 존재의 내적 변화인 혼을 정화시키는 일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항상 내 말씀의 영적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가 심장 안의 나 자신에게 설명을 구하면, 너희는 내 말씀의 영적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갈망이 진지하다면, 너희가 옳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들이 너희에게 전해준 내 말씀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내 신적인 사랑의 물결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너희는 세례를 받는다. 내 사랑이 너희를 내 영으로 채우고 너희를 진리로 인도한다. 사랑과 지혜와 힘이 이제 그의 소유가 되고 생명수와 사랑으로 세례를 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혼의 끊임없는 동반자가 된다.

아멘

세례에 대해. 성인의 세례.

B.D. No. 6769

1957년 2월 24일

**너**희가 나로부터 생명수를 받고 너희가 스스로 생명의 원천에서 자신을 쾌활하게 하고 이로써 너희 혼을 위한 힘을 받으면, 너희가 영의 세례를 받은 것이다. 너희는 영의 물로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이 땅에 세운 내 교회에 속하게 되고 너희는 내 교회에 속하는 자격을 단순한 형식을 통해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는 세례식이 올바른 기독교인이 되게 한다는 보장을 절대로 줄 수 없고 최대한으로 사람을 나에게 인도하려는 선한 의지의 증거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나에게 돌아오는 일은 사람이 스스로 이뤄야만 한다. 내 영을 통해 그에게 원천이 열리면, 그는 비로소 생명수의 원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가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는 의식적으로 내 교회에 속하게 되고 영이 거듭나게 된다.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은 나에게 귀환하는 일이다. 이런 귀환이 전적으로 의식하는 가운데 이뤄져야만 절대로 한 형식으로 대체될 수 없고 너희의 의지가 동인이 되어 나에게 향해야만 한다. 너희는 나와 내면의 연결을 구해야만 하고 높은 곳으로 향하는 길에 내 지원을 요청해야만 한다. 자녀가 실제 이런 모든 일에 대해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 나와 교제하도록 격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가 배운대로 행하고 그가

스스로 자유롭게 나를 위하는 결정을 내리면, 그는 영의 세례를 받기 위해 물결 안으로 들어가  
가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 생명수가 이제 그에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는 이제 비로소 영으로 진리로 나에게 기도할 수 있고 내  
영에 의해 깨우침을 얻고 동시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나에게 드리고 이로써 내가 직접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순간에 세례의 역사는 이뤄진다. 그는 이제 나에게 속하고 그의 길에 아직 모든 종  
류의 유혹에 대항하는 많은 싸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제 그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내 대적  
자가 그를 다시 점령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와 생명력 있는 연결이 이미  
받게 한 영의 세례가 그를 보호하기 때문이고 나와 생명력 있는 연결과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기도가 씻어주고 치료하는 효과를 가진 내 생명수로 이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우물 안  
으로 들어가려는 자세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내적인 세례가 이뤄지기 전에는 외적인 세례식이 사람이 영의 세례를 받게  
할 수 없고 세례식은 항상 형식으로 머물게 될 것이고 어떤 축복도 주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러므로 성인에게 행해지는 세례식은 마찬가지로 단순한 형식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의 세  
례를 보장하지 못한다. 반면에 나와 생명력이 있는 내적인 연결과 내 영을 받는 역사가 외적  
인 어떤 형식이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

나는 항상 단지 나에게 속하려는 사람의 의지를 평가한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내 대적자  
와 분리되려고 추구하는 사람의 의지를 평가한다. 이런 의지에 따라 이제 사람에게 생명수를  
주는 원천이 열릴 수 있다. 그러면 생명수가 끊임없이 흐르고 나에게서 나온 모든 말씀이 혼  
에게 빛과 힘을 줄 것이고 그러면 아직 혼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걸형체가 분해가 될 것이고  
병든 혼은 치유되고 연약한 혼은 강해지고 세례가 변화를 의미하고 혼이 이제 거하는 영의 영  
역의 변화를 의미한다.

혼이 의식적으로 내 대적자의 영역에서 내 나라로 들어섰고 혼이 이제 내 영에 의해 깨우침  
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혼의 의지가 이런 일을 허용하기 때문이고 혼이 이제 생명력이 있게  
되고 그러므로 내가 내 영을 부여할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이다. 혼은 이제 더 큰  
갈망으로 나 자신에게 향하고 나와 하나가 되려고 시도하게 된다. 왜냐하면 혼이 나를 깨달았고  
나에게 귀환이 이제 이뤄졌고 혼이 이제 영원히 내 소유이고 영원히 내 소유로 머물기 때문이  
다.

아멘

물세례에 대한 설명.

B.D. No. 8643

1963년 10월 13일

**너**희는 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문자를 너희 이성  
으로 해석하여 올바른 결과에 이르지 못한다. 너희는 내가 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를  
이해를 못한다.



세례를 너희는 세례 받으라는 계명에 순종을 나타내는 의미로 외적인 나타남이 단지 물속으로 잠기는 것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외적인 나타남이었고 외적인 나타남으로 남고 절대로 실제적인 내 근본 가르침이 아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 만으로는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너희들도 이에 동의해야만 되게 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향할 때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비로소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자신의 목표인 온전함에 이르고 영원히 나와 하나가 될 수 있기 위해 받아야만 할 진정한 세례이다.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한 불이다. 이로부터 아들의 지혜가 나온다. 이제 영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한다.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이 사랑과 지혜로 충만하게 되어 자신 스스로 다시 능력과 자유 함에 이를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는 내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 사랑, 지혜 그리고 영의 능력이 온전함으로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그는 내 사랑의 바다에 잠겨야만 한다. 그는 모든 진리 안에서 인도되어야만 한다.

이는 항상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넘치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들에게 지혜가 숨겨져 있는 내 말을 사랑 안에서 전해줘라. 이로써 그의 안에서 영의 역사가 가능하게 하라. 이 역사는 사랑의 행함이 있을 때 가능하다. 내 영계 나타나면 지혜와 진리에 합당한 지식을 부어 주는 내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다. 사랑 지혜 능력에 대해 너희는 진리에 부합되게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 이 가르침이 물에 잠기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진정한 영적 세례이다.

너희는 외적인 형식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외적인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단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가치 있게 평가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너희의 올바른 생각의 증거로써 세례 요한이 요르단 강가에서 나에게 세례를 줄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은 나를 거의 알지 못했고 그 당시에 많은 외적인 형식들이 행해졌고 개개인이 특정한 성장 정도에 이르러야만 그에게 세례의 영적인 뜻을 이해시켜 줄 수 있었다.

게다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으로써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표현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는 아주 영적인 수확이었다. 내 예비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증명 해주기 위해 나 자신도 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이런 외적인 형식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했으면 이 설명은 무의미 하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순수한 영적인 진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물세례가 그들에게 어떤 피해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나 유용한 것이 되는 것은 그들이 세례 요한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즘에도 만약에 그가 내 끝없는 아버지로서 사랑이 그에게 전해준 내 말을 영접했을 때 말씀대로 살 때 사랑에서 나오는 지혜에 도달했을 때 이제 그 안에서 역사하는 빛과 능력인 내 영이 깨어나게 될 때에 세례를 받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물세례로 대체할 수 없다. 물세례는 단지 하나의 상징으로 남게 된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밖으로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순수한 영적인 체험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외적인 형식을 탈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말할 수 있다. 모든 외적인 형식과 관습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나는 절대로 한 사람을 그가 외형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지로 평가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그의 나에 대한 내 말에 대한 내적인 자세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내 말을 영접하고 이를 인정하고 내 말에 따라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갈 때 그는 이 땅에서 완성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말은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이기 때문이다.

이 물에 너희는 잠겨야 한다. 이 물이 너희의 육체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너희 안에 영이 생명으로 깨어났을 때 그리고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너희를 채워서 너희가 원초에 그랬던 것처럼 원래의 존재처럼 될 때에 그리고 너희가 생명수로 영원한 생명에 도달했을 때 너희는 영의 세례를 체험한 것이다.

아멘

고린도 전서 **15** 장 **29** 절. 죽은 자를 위한 세례.

B.D. No. 8941

1965년 2월 22일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라: 만약에 이성을 활용해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없으면, 단지 내 영만이 너희들 가르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나오지 않은 말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의 이성은 잘못 된 길을 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설명할 수 있고 설명할 내 영에게 요청하는 일이 필요하다.

죽은 자 위에 베푸는 세례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렇더라도 죽은 자에 대한 세례는 너희는 이를 단지 한 사람이 이웃을 긍휼히 여겨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생명수를 주는 것으로 즉 세례의 총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인 사랑으로 그에게 내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나는 항상 다시 죽은 자의 관해 말했다. 너희는 항상 이를 영이 죽은 자로 이해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죽은 자를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라" 이 말이 그러면 내가 영이 죽은 자를 의미했다는 것을 너희 모두 다 이해해야만 하고 너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내 사도가 한 이 말을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아주 분명한 내용이다. 사람이 죽은 사람 위에 세례식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 말의 의미를 바꿔 치기 한 것으로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내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전적으로 세상적인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로써 그들의 아주 낮은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모든 영이 깨어난 사람들은 이를 잘못 된 것으로 깨닫고 내 말씀으로 전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왜냐하면 이런 말은 큰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세례라는 말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런 말로 인해 자신을 오류에 빠지게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이를 잘못 된 것으로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너희에게 항상 설명한다. 이 모든 설명들은 절대로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전해주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말이 진리인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내 말에 전적으로 반대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계시를 통해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 왜냐면 내가 너희가 잘못 된 생각에 머물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순수한 진리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아멘

죄의 용서. 무오설. 관습적인 행동.

B.D. No. 1482

1940년 6월 20일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행하는 의식은 단지 주님이 이 땅에서 가르친 것의 상징이다. 이런 의식을 수행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는 단지 유일하게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에 달려 있고, 긴밀한 단둘의 대화 가운데 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에게 긍휼과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일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의식은 다시 단지 혼에게 위험이다. 왜냐하면 의식이 기계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의식을 외부에 알 수 있도록 만들기에는 의식은 아주 많이 내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일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는 그가 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정해진 의식에 참여하면서, 피상적이 되게 할 수 있는 의식이다.

혼의 구원을 위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은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의식은 쉽게 죽은 행위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연약함과 죄짐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죄사함을 위한 전제 조건이고, 모든 외적인 의식은 단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상징이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이제 너희가 처한 위험을 알려준다면, 너희는 반항하지 말고, 하늘의 아버지께 그가 너희를 올바르게 가르쳐 준 것에 대해 심장으로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의 내면의 성장을 위해 사용해야 할 많은 힘을 외적인 형식을 갖추는 일에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랑으로 하는 긴밀한 생각이 하나님의 동의 없이 사람들에게 준 교회의 계명에 부지런히 따르는 일보다 너희에게 훨씬 더 큰 은혜를 준다. 교리의 대표자들은 다시 인간이 만든 교회의 우두머리에게 오류가 없다는 교리에 의한 영적인 규정 뒤로 숨는다. 위로부터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것은 가장 순수한 진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위로부터 자신이 주는 계시를 통해 자신의 뜻을 알린다. 하지만 결코 사람들을 정하거나, 그들을 강압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서 나온, 자신의 의지를 통해 자유롭게 되는 법과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선포하는 법은 하나님이 준 계명에 개입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공식적으로 조건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행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계명을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가 규정을 따라 행하게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가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고, 그는 이미 그런 계명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 곳에서 특정한 시간을 정하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 묶이기 때문이다. 이는 아주 큰 인간적인 오류이고, 사람의 사랑의 역사가 아주 특별하게 활발하여, 이제 영이 깨어나 갑작스럽게 하나님

의 실제의 뜻을 깨닫게 되지 않는다면, 이 오류는 싹이 난 작은 식물의 하나님을 향한 내적이 갈망을 죽이는 위협을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실제의 뜻을 깨닫는다면, 그는 비로소 그리스도 자신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준 교리에서 이미 크게 벗어난 교리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런 일은 혼에게 가장 크게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혼이 의식적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한 추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혼에게 어떤 계획이 제시되어, 이를 수행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 편에서 행한 선행되는 일을 통해 자신의 혼에 대한 작업을 소홀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은 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고 믿는다.

아멘

너희가 죄를 용서한 것처럼.

B.D. No. 6709

1956년 12월 8일

**너**희가 성경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너희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되거나 또 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문자는 죽이고 영이 비로소 생명력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말한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에 깨우침을 받은 영이 필요하고 내 제자들은 나를 이해했다. 왜냐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그들에게 내 영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이고 내가 이런 도움을 그들에게 줘야만 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십자가의 죽음 전에는 구원의 완성을 이룬 후에 할 수 있는 만큼 내 영이 역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 내 영의 역사를 허용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고 의식적으로 구원 사역의 은혜를 전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가 이제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내 영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일이 가능해졌고 내 영이 이제 내가 약속한 것처럼 그를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그러면 그는 다음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다.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보류하면, 죄가 그에게 남을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내 제자들에게 했다. 나는 제자들이 내 영을 받은 후에 사람들이 죄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질병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오는 각 사람들의 상태를 밝고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을 알았다. 사람들이 내 제자에게 병고침을 구할 것을 알았고 나는 그들 가운데 누가 죄짐을 느끼고 있는지 또는 단지 병 고침만을 원하는지 알았다. 내 제자들도 이 모든 것을 알았다. 제자들의 영의 깨우침을 받았고 이제 내 의지를 전적으로 영접했고 전적으로 내 뜻대로 살고 행하기 원했다.

그러므로 내 영이 내가 죽은 후에 제자들이 직분을 행하며 전 세계에 내 가르침을 전할 때 그들에게 지시를 해주었다. 제자들도 누가 죄 사함 받기에 병고침을 받기에 합당한지 누가 아직도 깊은 죄악 가운데 있으며 죄는 멀리하지 않고 단지 병고침을 원하는지 알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단지 사람들의 상태를 깨닫게 될 것이고 나로부터 온 영이 그들에게 지시하는 대로 올바르게 대처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했다.

올바른 사랑의 삶으로 내 영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된 사람이 내 올바른 제자이다. 나 자신이 그 안에서 내 영을 통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은 깨우침을 받고 내 말씀을 뜻에 맞게 해석할 수 있다. 내 말씀은 내 말씀의 유효성이 있다. 사람들이 나에게 후회하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의뢰하거나 또는 내 영으로 충만한 종들 중 한 사람에게 의뢰하면, 사람들이 항상 또 다시 자신의 질병은 치료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종들도 내적인 지시를 통해 누가 크게 후회를 하는 내적인 죄의 고백이 부족한지 알고 그러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안다.

내가 그들의 심장을 알고 내 영을 받으려는 그들의 자세를 아는 내 제자들과 그들이 내 사도로서 세상에 나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만든 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다. 같은 말씀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적용이 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삶에서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는 조건을 성취한 사람들과 그들 안에서 내 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허용하는 사람들을 내 제자로 이해한다. 그러나 자신을 단지 같은 위치에 세우고 자신에게 또는 자신 위에 영을 받는 일을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제자로 여길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내 말씀을 그들 자신에게 준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죄 사함을 유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볼 수 있는 영의 역사를 통해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전혀 부족한 사람이 자신이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안 하는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영의 볼 수 있는 역사를 나타냈을 사람들이 전하는 가르침을 통해 얼마나 무의미하게 내 말씀을 변경시키는 일이 일어났는지에 주의하라. 내 영은 단지 희귀하게 공개적으로 역사한다. 왜냐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깊은 사랑과 이로 인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죄 사함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나로부터 특권을 받은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그들은 내 영의 역사가 역사하는 곳에서 내 영의 역사를 막는다. 순수한 진리가 설명해주려고 하는 곳을 사탄이 역사하는 곳으로 뒤집어 씌운다. 이런 일은 사람들이 구원을 구하는 곳에 얼마나 영적인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지를 증명한다. 이런 곳에 있는 어두움은 이미 너무 깊어 빛을 영접하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항상 단지 사랑을 설교할 수 있다. 왜냐면 단지 사랑의 삶이 빛을 비추기 때문이다. 단지 사랑이 불타오르는 사람만이 진리를 깨닫고 이런 모든 잘못 된 가르침에 놀라며 물러서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는 모든 말은 헛되고 그런 말은 이해받지 못하고 항상 또 다시 말씀의 의미를 왜곡시킨다.

사랑이 유일하게 영에게 밝은 깨달음을 주고 사랑이 유일하게 내 말씀을 이해하게 한다. 너희가 사랑으로 올바른 제자가 되었을 때 너희는 자신을 나를 따르는 제자로 여길 수 있고 빛으로 깨달은 영의 사람이 되어 진실로 후회하는 죄인들에게 그들의 죄가 확실히 사함 받았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 왜냐면 너희는 나 자신이 후회하며 죄의식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오는 죄인을 영접하고 그를 용서함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진실로 그들의 신체의 질병도 고쳐 줄 것이다. 나는 영이 깨어난 종들에게 큰 능력을 부여할 것이고 이로써 내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보류하면, 죄가 그에게 남을 것이다." 왜냐면 그들 안에 역사하는 영이 내 영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죄를 용서해 주는 자들에게.

B.D. No. 8373

1963년 1월 6일

**내** 말을 잘못 해석해 이미 많은 오류들이 생기고 전파되었다. 이런 오류를 없애고 순수한 진리로 다시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순수한 진리가 자신을 가르치게 해 영접하기보다 오류를 더 즐겨 영접하고 이것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 말을 단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영적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인간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전에 나를 떠난 결과이다.

한때 가장 밝은 깨달음을 가지고 전적인 빛 가운데 있던 그에게 원죄 때문에 영적인 어두움이 임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받지 않는 한 여전히 이 죄 가운데 남게 된다. 이런 불행한 인류를 위해 나 자신이 이 땅에 임해 인간 예수로서 이 모든 측량할 수 없는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의 제사를 드렸다.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인간이 된 예수를 하나님의 구세주로 여길 것인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 대한 지식과 그가 인간이 된 이유와 구속사역을 알아야만 한다. 이를 위해 나는 이 전에 내가 스스로 가르쳐서 민족들에게 내 대리자로서 내 복음을 전할 수 있게만 만든 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다.

구속사역의 은혜를 영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큰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즉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십자가와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도피처를 삼는다면 그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내 제자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나와 내 구속사역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들은 누구든지 그들의 가르침을 영접하는 자에게 모든 죄의 사함을 보장해줄 수 있었다.

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왜 자신들이 불행하며 짐을 지고 있는지 깨달음을 주는 사명을 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내가 준 사명대로 나를 영접하고 나에게 죄 사함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는 확신을 줄 수 있었다. 그들은 나 대신에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게 전세계로 파송되었다.

그들은 내 영으로 깨우쳐져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죄악 된 상태를 깨달았고 나 대신에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것을 선포할 만한 권한을 주는 회개하려는 사람들을 분별해 깨달았다. 그들은 단지 내가 이 땅에서 거할 때 내가 했어야만 하는 일들을 나 대신 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용서해 주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올바른 것이고 이런 뜻 가운데 이해하 여야만 한다. 이제 문제는 누가 이 땅에서 내 올바른 대리자로서 사역하는 가이다. 단지 이것에 따라서 죄 사함의 선포가 인간으로서 가능하다. 다시 말해 내 뜻에 의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을 대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내 영에의 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고 그가 죄를 사해줄 사람의 혼의 상태를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을 내 대리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이웃들에게 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내 영으로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이 사역의 영적인 이유와 큰 원죄를 안다. 그러므로 내 영의 역사가 그에게서 가능해야만 한다. 그러나 자신을 내 대리자

라고 내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점을 볼 수 가 없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이웃들의 혼의 상태에 대해 판단하고 그들에게 죄 사함을 선포할 권한과 능력이 없다. 만약에 이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받은 사람은 만약에 그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을 가서 예수님께 직접 자신의 죄 사함을 구하지 않으면, 자신의 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사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 하는 안도감을 주는 선포들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런 잘못 된 가르침으로 미리 정해 준 관습을 행함으로써 이제 자신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믿고 스스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지 않는 혼들에게 아주 큰 해를 끼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에게 원죄로부터 사함을 선포할 수 있다.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지식은 단지 순수한 진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나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자들은 단지 사람들을 우유부단하게 만들 것이다. 왜냐면 이웃이 나 자신이 이 약속을 주었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죄 사함을 선포해 자신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안전한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은 이제 자신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가 죄를 용서해 주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나 스스로 내 올바른 제대로 선택한 자들은 이 말씀의 권세를 항상 유지하며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같은 말이 절대로 자기 자신 스스로나 또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내 제자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나 자신만이 누가 나를 올바르게 섬기는지 나를 섬기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또 다시 내 복음을 모든 진리 가운데 전하고 오류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이와 싸울 이 땅의 내 진실 된 대리자를 택한다. 단지 진리가 사람들에게 올바른 빛이 되기 때문이다. 이 진리 안에서 사람들은 높은 곳을 향한 길을 아버지의 집에 있는 나를 향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부부.

B.D. No. 4834

1950년 2월 10일


**결**혼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부는 단지 이 땅에서 맺은 것이고, 하늘에서 맺어준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이 땅에서 하나가 된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요청할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비록 이 땅에서 법적으로 결합되었을 지라도, 즉 결혼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절차를 갖췄다 할지라도, 이 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 둘이서 하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깨닫고, 사랑으로 주님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결합을 축복해주기를 구할 때, 비로소 확실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왜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갈망하는 곳에 함께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사랑으로 서로가 이루는 연합의 증인이다.

그러므로 아주 적은 수의 부부들이 단지 하나님 앞에 맺어진 것으로 여길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면 교회의식이 하나님이 세운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로 자신의 축복을 줄 수 없는 사랑이 없이, 세상 유익을 위해 결혼하는 이들에게도 결혼의식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는 거룩한 것이다. 부부는 하나님이 인류를 존속시키기 위해,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혼이 같이 성장하도록 만든 것이다. 부부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또는 세상 유익을 얻기 위한 사업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부부관계는 맘대로 중단시키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연합된 결혼은, 다시 말해 서로 같은 의지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한 결혼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연합되고, 세상적으로는 단지 죽음을 통해서만 자유롭게 되어 한 동안 서로 떨어진다. 이런 부부는 영의 나라에서 다시 연합이 되어, 함께 높은 성장을 추구한다. 이런 부부는 이 땅에서 나, 영계에서 나 영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혼들의 연합으로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목표이다. 사랑으로 한번 서로 연합한 것은 영원까지 연합된 상태로 남는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맺어진 진정한 부부는 단지 아주 적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깊은 행복과 영적인 하나됨을 보기가 힘들다. 왜냐면 사람들이 그들의 욕망을 따라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절대로 깊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절대로 오래갈 수 없는 순전히 육체적인 호감에만 만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축복을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올바른 부부가 된다. 이런 부부는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영원까지 혼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산다.

아멘

 든 축복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위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와야만 한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면, 그의 축복은 항상 단지 이웃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면,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과 연결을 이룰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좋다고 인정해주기를 구하는 기도는 너희가 모든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도움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실제 이 땅의 자신의 일꾼을 택하여 일꾼이 자기 대신에 사람들에게 그 자신이 사람들에게 선물하기 원하는 것을 전하게 하고 자기 대신에 사람들에게 말하게 한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의 의지의 자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직접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대리자들은 이웃들이 행하는 일을 인도해 그들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단지 유일하게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주고 그러므로 사람은 단지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 스스로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느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간청하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

왜냐면 많은 것들이 단지 겉치레이고 내면의 의미는 더욱 적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내적으로 연결이 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간청하지 않고 어떤 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확실할 것이다.

그러나 형식이 되어버린, 기계적으로 실행되고 관습과 연관되어 있는 축복을 나누는 일은 항상 형식으로 남고 사람들에게 적은 효과를 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에 하나님의 동의를 얻었을 것이다. 왜냐면 예를 들어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의 자유의지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방해했을 형식적인 결혼도 축복하기 때문이다.

결혼이라는 할 수 없는 결혼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이유로 이뤄진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결혼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선행조건을 갖추지 못한 연합이 이뤄진다. 축복하는 사람과 축복받는 사람이 하나님로부터 축복받기 원하는 사람의 의지를 증명하는 하나님과 긴밀한 연결을 이루면, 교회의 축복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될 필요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교회는 이런 연합을 축복하지 않을 중단을 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 자신이 이런 결혼을 축복하는 것처럼 축복한다.

그러므로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 사람의 의지를 증명해주는 하나님과 긴밀한 연결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혼이 구원을 받게 인도할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간청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도해 이 일이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는 법을 알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전혀 축복을 받지 않고 시작하는 일은 적게 도움이 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마찬가지로 단지 형식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특권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가할 수 없다. 영으로 진리로 기도하고 수행하는 일 만이 항상 단지 가치를 갖을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긴밀한 기도는 성취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단지 이런 긴밀한 연결 가운데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아멘

의식들 (신품성사, 종부 성사 (임 종전 마지막으로 받는 기름 바르는  
예식))

B.D. No. 8692  
1963년 12월 4일

**나**는 너희가 내 말을 영적으로 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이해한 것에 관해 설명을 받게 되어 이런 오류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너희를 계속 가르쳐 주기 원한다. 너희는 내 영이 자신을 표현하게 하기 위해 외적인 의식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외적인 의식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직분이나 지도자의 직분 또는 교회에 책임자로 채울 수 없다.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았으나 그러나 적은 수만이 선택을 받는다. 이런 적은 수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지시를 내린다. 나 자신이 나와 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위치에 그들을 세운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의 선생이나 지도자로서 능력을 갖추게 조건을 제시한다. 그 자신이 진리 안에서 살 수 있기 위해 이 땅에서 내 대리자로서 내 이름으로 내 뜻에 따라 내 인도함을 받으며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내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 땅에서 내 대리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전적으로 내 질서에 따라 살며 모든 의지로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이웃들에 의해서 실행되는 외적인 의식에 의해서 내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그들의 직분에 임명을 받았다. 왜냐면 그들이 부름 받는 것은 자신을 전적으로 나에게 복종해 사랑을 통해 나와 긴밀하게 연합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나 자신이 그들이 행해야 할 직분을 줄 수 있게 되는 전적으로 내적인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

이런 긴밀한 헌신과 그들의 사랑의 삶이 그들의 영이 깨어나는 것을 보장한다. 그러면 그들은 진리 안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모든 오류에 대항하고 나로부터 주어진 것이 변개 된 것에 대항해 싸운다. 그들은 자신을 오류로부터 분리시킬 것이다. 이제 너희는 왜 사람들이 내 올바른 대리자라고 예측하고 인정하는 곳에서 그를 찾을 수 없는 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오류를 주장하고 진리를 진지하게 구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올바른 대리자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내 섬기는 종이냐 대리자가 일 수 없다. 왜냐면 그들은 오류 가운데 서있고 순수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건진 성사를 어떻게 여겨야 할지 알 것이다. 왜냐면 이런 사람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전적으로 내 의지를 따르려는 자세를 천명하고 이를 증명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나 자신이 그가 나에게 그리고 진리에 가까이 다가오게 그의 심장에 넣어준 의심이 자신 안에서 그 안에서 일어날 때 의심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다.

이런 의심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기를 거절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강제로 큰 봉사로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그는 빛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눈을 닫는다. 즉 그는 내가

빛을 비추어 줄 수 있게 그의 심장을 나에게 열지 않는다. 너희 사람들은 진지하게 나를 구하는 사람이 오류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영원한 진리인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과 내가 진실로 함께하는 내 권세와 사랑을 너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전에 너희는 단지 순수한 진리에 대해 내 대적자의 역사에 관해 그가 너희를 끌어들이는 오류에 관해 깨달음을 얻게 너희를 가르치게 허용해야만 한다. 너희는 그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하는 진지한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내 도움을 요청해야만 한다. 단지 너의 인간들을 영의 어두움 가운데 벗어나게 하고 너희에게 빛을 주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내가 이를 보장하는 것을 너희는 믿지 않느냐?

너희가 단지 선한 의지 가운데 너희의 이성을 활용하면, 너희는 너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한다. 너희에게 이성이 주어 졌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짐승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언젠가는 너희가 이성을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책임을 져야만 한다. 왜냐면 이성은 너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빛을 갈망하면, 너희에게 깨달음을 갖게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외적인 형식이 영적인 성공을 보장한다는 모든 곳에 내가 항상 다시 강조하는 것처럼 진리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혼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형식과 관습일 뿐인 의식을 사람의 임종 전에 행하면, 절대로 너희의 혼에게 이 땅이나 저세상에서나 성공을 이룰 수 없다. 그러나 나 자신은 모든 각각의 혼을 안다.

나는 그들을 그들의 사랑의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왜냐면 혼이 육체의 죽음 후에 사랑이 전혀 없어 어두움의 나라를 지배하는 자에게 속해 어두움의 나라에 가지 않으면, 이 사랑의 정도만이 유일하게 혼이 받게 되는 빛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생각하기를 요구한다.

B.D. No. 7448

1959년 11월 6일

**너**희가 내 부름을 들으면, 너희 심장을 닫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 원하는 것을 들으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심판해보라. 너희가 너희에게 아직 부족한 것을 너희가 아직 내 영이 내면으로부터 너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로 생명력이 있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너희 모두는 내 영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 왜냐면 내 신적인 아버지의 영의 불씨가 이 불씨가 불이 붙었든지 또는 꺼졌든지 간에 너희 안에 모든 사람 안에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씨는 너희 안에 있고 단지 너희 안에 작은 사랑의 불만이 필요하다. 그러면 너희가 불씨에 불을 붙이고 밝은 불길로 타오르게 할 수 있다.

너희는 너희 안의 불씨가 타오를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주었느냐? 그러면 불씨는 작은 빛을 발산해야만 된다. 이런 작은 불빛 가운데 너희는 너희가 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영의 어두움 가운데 아직 살고 있는 너희에게 연관관계를 알지 못하

는 너희에게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에게 깨달음을 주게 움직이려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생각하지 않는 너희에게 말한다. 왜냐면 진지한 생각은 너희가 의심하고 질문하게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아직 어두운 영으로 있고 스스로 너희 안에 빛을 아직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생각하느냐? 너희는 실제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믿지만 그러나 눈이 아주 먼 상태여서 그들을 인도자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부족한 영적인 상태를 한번 생각하라.

자신이 사랑과 지혜와 권세인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는 사랑과 지혜와 권세를 알게 해주는 모든 것들과 걸를 둘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라. 너희에게 제공되는 변개가 되었거나 또는 순수한 사람의 가르침이 되버린 믿음의 가르침 가운데 어디에서 사랑과 지혜와 언제를 찾아 볼 수 있느냐? 너희는 단지 깊게 생각해 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 눈에 비늘이 사라지게 돼야만 한다. 무한 가운데 가장 큰 영인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이 교회의 계명이 정한 것과 같은 요구를 너희에게 하지 않는다. 그가 유일하게 너희 사람들에게 요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너희가 단지 이 요구를 따르면, 너희의 내면은 이미 밝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는 너희 안의 영의 불씨가 생명으로 깨어나게 되고 이 불씨가 너희를 모든 진리 안에서 인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 장 15-26: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해 자기를 우리에게서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어디에서 진리를 구하느냐? 변개가 된 영적인 내용에서 잘못 된 가르침에서 사람이 단지 자유의지로 완성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반면에 영적인 강요를 아직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가르침에서 구한다. 너희는 이런 모든 가르침과 사람이 만든 계명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데 방해받는다라는 것을 이미 생각해 보았느냐?

사람이 선포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계명을 대부분 뒤에 두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믿느냐? 너희는 이미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가 생길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치고 인도하게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을시키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미 생겼는지 생각해 보았느냐?

너희는 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운 교회라는 권리가 없는 사람의 작품을 앞세우느냐? 실제 너희 사람들 가운데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고 그의 영이 깨어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속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세운 교회는 사람의 작품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실제로 모든 조직 안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진정하게 믿는 자들의 공동체이다. 그러나 이 공동체의 선행조건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너희가 사랑 안에서 살면, 너희 안의 영 자신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너희는 밝게 보고 밝게 듣는 가운데 너희가 깨어나지 못했을 때 아직 방어하고 굳게 붙잡았던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로서 나는 사람들을 단지 내면의 상태에 따라 그의 사랑의 삶으로 그의 깨달음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에게 빛이 주어지면, 그 스스로 빛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는 기뻐하며 생명의 빛으로 자신의 혼을 밝혀 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면 내 사랑은 항상 빛이 형태로 너희에게 다가가기 때문이다. 왜냐면 단지 빛만이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진리가 영원한 빛이기 때문이다. 단지 나 자신이 영원으로부터 빛인 나 자신으로부터 항상 빛이 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지식으로부터 결심에 도달해야만 한다.

B.D. No. 8796

1964년 4월 2일

**외**적인 것은 내가 전혀 인정하지 않음을 내가 단지 심장의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것만 인정함을 너희에게 말해 두어야만 한다. 너희가 형식적인 행동을 통해 나에게 경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너희는 이상숭배와 같은 방식을 행한다. 너희는 나와 더 긴밀하게 연합이 되기 위해 너희 심장 안에 외적인 형식과 관습과 전혀 무관한 단지 심장만이 말하는 곳에 임할 수 있는 내 임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가 예수의 순수한 가르침을 변경시켰다는 것을 너희 인간이 가르침 안에 첨가를 했다는 것을 단지 사랑의 두 가지 계명이 포함 된 내 복음보다 이런 인간적인 작품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함을 너희에게 말한다.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 가르침을 보증한다. 그러나 너희가 내 복음에 첨가한 모든 인간적인 요구를 아주 양심적으로 따르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않다.

그러면 이런 행위들은 전적으로 가치가 없다. 이런 것들을 너희 혼에게 어떤 가장 작은 유익도 주지 못하고 단지 너의 사람들을 단지 혼돈시켜 너희의 의무를 완성시켰다고 믿게 한다. 그러나 모든 의무적으로 한 일들은 전적으로 의미가 없다. 왜냐면 인간의 의지를 제외시키기

때문이다. 비록 자유의지로 인간적인 요구들을 응할지라도 이런 행동들은 사랑의 역사만이 가져올 수 있는 축복을 가져올 수 없다. 그러나 나에 대한 긴밀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그의 모든 생각을 나에게 향하게 한다.

그는 혼자 있는 곳에서 나와 긴밀하게 일대일로 대화를 한다. 그는 그의 나를 향한 긴밀한 생각을 오히려 더 방해하는 환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대로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무지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외적인 습관과 관습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특히 사람들의 생각을 잘못 된 곳으로 인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자신은 이로 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는 모든 내적인 체험과 모든 깨달음을 사랑 안에서 활용할 것이고 항상 나와 연결이 긴밀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심장 안에서 이를 수 있다. 나 자신이 실제 이 땅에 믿음의 바위에 기초한 내 교회를 세웠다. 그러나 나는 조직을 만들지 않았다. 이런 조직은 조직 자체 만으로도 외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사람이 진지하게 나와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인간의 내면에 감동을 주기 보다는 더 외적인 것에 치중을 한다.

단지 내 말씀만이 교제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내 말씀으로 사람들이 사랑의 계명을 성취하고 사랑을 통해 생명력 있는 믿음에 도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장 긴밀한 나와 연결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나 자신이 이 땅에 세운 교회의 일원이다. 나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전해주려고 한다. 그러나 단지 적은 수의 사람만이 진리를 영접한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은 곧 깊은 지식에 도달한다. 이런 지식으로부터 그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왜냐면 어떤 사람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지식에 배치되는 역사가 세웠다면, 이런 역사는 분명하게 내 대적자의 소행으로 세워진 것이다. 그의 모든 외적인 형식들이 내 고유의 의지를 전적으로 잘못 소개하려는 경향으로 증명이 된다. 그러면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은 내 대적자의 역사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해야만 한다.

나로부터 그에게 전해진 진리를 자신에게 사랑이 없음으로 인하여 또는 자신의 낮은 성장 정도로 인해 영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버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은 이해하기 쉽다. 알고 있는 사람은 오류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오류 가운데 즉 대적자의 역사의 남는다면, 그는 단지 세상적인 요구만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이웃들 고려하는 세상적인 행사일 뿐이다. 그럴지라도 진리로 인도하고 그들의 불신을 강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전통에 대항하는 것은 어렵다. 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단지 작은 수의 사람들이 자신을 이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의 진리를 향한 열망이 특별하게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자신은 어떠한 타협할 수 없다. 나는 단지 너희에게 오류와 진리에 관해 선명하게 설명해줄 수 있다. 너희 스스로 결심을 해야만 하고 너희 결심을 증명해야만 한다. 너희가 순수한 진리 안에서 인도 받는 것은 실제로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



내 영이 아주 큰 소리로 한 사람에게 말해 그가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그의 진리를 향한 의지에 응답해 그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일은 한편으로는 내 사랑의 행위이다. 이런 은혜의 선물은 사람들이 진리를 영접하면서 그리고 아직 전통적인 조직적인 규정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대변하면서 활용되어야만 한다.

이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이 내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비록 내가 한번 진지하게 나를 선택한 사람을 더 이상 대적자에게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 포기하지 않을지라도 항상 대적자가 그들의 의지를 연약하게 하여 그들을 다시 얻을 수 있게 시도할 위험 가운데 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올바른 교회.

B.D. No. 8651

1963년 10월 21일

**나** 자신이 이 땅에 세운 내 교회에 속하는 사람은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이 믿음은 사랑에 의해 생명력 있게 된 믿음이고 이 믿음은 마찬가지로 단지 사랑이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안의 영의 역사를 가능하게 한다. 항상 단지 자신을 나와 긴밀하게 연결시킨 사람을 내 임재를 느끼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게 만들 수 없는 이 때문에 내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처럼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바위와 같이 모든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들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만이 내 교회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베드로가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한 시간 내에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지라도 베드로는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혼이 뒤로 물러서라는 재촉을 받았고 버려진 느낌을 받았던 반면에 큰 위험 가운데 탈출구를 볼 수 없었던 것은 주로 그의 이성이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시험 이후에 그의 나를 향한 사랑은 항상 깊어 졌고 그의 믿음은 굳건하게 되었다. 이런 믿음을 나는 내 교회에 속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요구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원수인 내 대적자에게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될 것이다. 내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은 항상 진리를 깨닫고 모든 오류로부터 떠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의해 세워진 교회 일원이라는 증거로 그 안에서 내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내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더 이상 불투명한 것이 없고 의심이 없고 혼동을 일으키는 개념들이 없다. 내 교회에 속하는 사람은 빛이 될 것이고 그의 생각은 올바르게 될 것이다. 이 교회는 외적인 특징을 가질 필요 없다. 교회는 조직을 가질 필요 없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 조직 안에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 자신 안의 영을 깨우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 교회는 사랑을 통해 나와 하나가 된 사람들의 진리 안에서 영적인 연결이다.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계적으로 행해지는 외적인 행함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행하는 일이다. 너희는 생명력 있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성취해야 함을 항상 의식해야 하고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 항상 열심히 추구해야 한

다. 그리고 항상 나에게 헌신해 나 자신이 너희를 인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진실로 너희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면 나는 단지 너희를 양육하면서 너희에게 가르쳐 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너희 혼의 성장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든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자신에 의해 세워진 내 교회의 일원으로써 너희는 항상 내 올바른 제자들이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에게 임하는 고난과 고통에 복종하며 견디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고난과 고통을 너희가 합격해야 하는 너희의 혼의 성장을 높이기 위한 돕는 수단인 믿음의 시험으로 깨닫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 안에 있는 영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임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땅의 삶과 함께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인 나와 연결이 되어 사는 두 번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삶이 너희에게 너희들 완성을 보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가 단지 나와 생명력이 있게 연결되었으면, 이를 통해 진리 안에서 인도받을 수 있고 게다가 항상 사랑의 삶을 살고 이를 통해 굳건하고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가 어떤 종파에 속했던 간에 이런 완성은 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다. 두 가지가 너희에게 부족할 때 너희는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없는 이 땅의 단지 죽은 형체에 불과한다. 왜냐면 너희가 외형적으로 행하는 것으로는 인간으로써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표와 목적인 내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이 땅에 세운 교회에 속하여라. 너희의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라. 너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하면서 너희 안에 영을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라. 너희는 이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지옥이 흔들리게 할 수 없는 믿음에 도달할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면, 너희는 이미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고 너희는 내 임재를 느끼게 된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나로부터 타락하기 전에 소유했던 능력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원래 초기부터 그랬던 것처럼 다시 온전할 것이다. 너희의 삶은 영원에 영원까지 축복될 것이다.

아멘